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達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獨逸中國兩國間에 軍需借款密約成立

獨逸은 一億圓限度로 軍需品供給
中國은 六年內에 軍需原料品供給
表面上으론『바터』契約

【上海二十六日發同盟】 一億圓의 巨額에 達한 獨逸의 對中軍需借款密約成立이 暴露되어 各方面에 衝動을 惹起하였다 卽 基本協定은 五月中旬 伯林에서 調印을了하고 細目協定은 目下南京에서 交涉中이다

【上海二十六日發同盟】 今回 獨逸의 對中借款成立은 國防相 부롬베르그氏의 代表者인 國防省經理部長 라이헤나우氏 파프로商會代表 크라인氏와 蔣介石氏代表及 駐獨大使 程天放氏와의 사이에 伯林에서 五月中旬 調印된것으로 表面은 中國原料品과 獨逸軍需品의 바타契約을 取한것이다 其實은 一億圓에 達하는 軍需品及 機械類의 註文과 이反對給付인 中國側 原料品輸入間에 數年間에 亘하야 時間的으로 間隔을 設定한것으로 事實上 一億圓의 借款을 中國에 與하는데 不外하다 基本契約內容은 如左하다

一、獨逸國防省은 一億圓을 限度로하고 武器 其他의 軍需品을 中國政府에 供給할것
一、右에 對하야 中國은 同國의 탕그스텐、桐油、落花生油、其他軍需用 特殊原料品을 四個年 乃至六個年以內에 獨逸에 供給할
一、交換할 品目數量單價及 時期方法에 關한 細目協定은 南京에서 크라인氏와 中國代表者間에 協議할

蔣介石氏

【上海二十六日發同盟】 去二十二日 上海入港의 汽船으로 獨逸로부터 來滬한 獨逸國防省 經理部長 라이헤나우將軍은 同行한 獨逸파프로商會代表 크라인氏와함께 二十三日 南京에至하야 昨二十五日 蔣介石氏와 會見하고 獨逸國防大臣 부롬베르그元帥로부터 蔣介石氏에게 보낸 書翰을 手交하고 크라인氏를 紹介한後 伯林의 軍需品借款 基本契約成立과 內容을 詳細히 說明報告하는同時에 細目協定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行하였다

獨國防相부氏

羅振中央軍에兵變

【上海二十六日發同盟】 粤漢線衢州에 配置된 羅振이 指揮하는 中央軍第七十七師第二旅은 二十四日 內戰反對를 唱道하고 兵變을起하야 廣西軍에 合流하려고 西方面에 向하야 進走하엿다

中央과 廣東妥協
九月부터 廣東도 大洋制

【香港發電】 廣東側은 廣西側과 中인데 甚한 政治的異變이 업는限 中央과의 合作을進行하는限 今年九月부터 大洋制를 實施하게될 模樣이다。 卽廣東省銀行은 七千八百五十萬元의 補助貨와 一千九百五十萬圓의 紙幣를 紙幣發行監督委員會에 移交하고 一部는 中央政府의 三千萬元大洋紙幣購入費에 充當하고 中央政府는 特別貸로 大洋紙幣一千萬元을 廣東省에 貸與하기로되엿다 廣東省이 財政難때문에 中央에 援助를 求하고잇던것은 오랜 以前일인데 압서 兩廣鹽運使 陳維周氏를 派遣한때 南京政府와의사이에 이미 財政問題에 關해서는 妥協이 成立되엇다고하며 또同省農林局長 馮銳氏가 南京政府와 折衝中인데 相當한 成果를 거두고잇는 模樣이다。 廣東으로서 가장 急을 要하는것은 財政再建이오 이에 依하야 軍事及 政治建設을 充實케함에 잇다。 따라서 財政的合作이라고 하더라도 畢竟은 南京으로부터 出金케하는 手段에 不過하야 좀처럼 屈服치 안흘모양이니 蔣介石氏가 抱懷한 全國統一工作은 早急히는 完成되지안흘것으로보인다。

豐臺事件으로 駐屯武官嚴重抗議

【北平二十六日發同盟】 二十六日朝 豐臺에서 宋哲元軍이 日本將校를 侮辱한 事件에 對하야 今井北平武官은 二十六日 午後五時 冀察政務委員會에 赴하야 責任者委員長代理 態少豪氏에게 對하야 豐台事件은 宋哲元部隊가 不斷히 日本軍에對하야 不遜態度를 取하고잇든結果 發生한것이오 單純한突發事件이아니다 絶對로 撤退를 要求하라고 嚴重抗議하엿다

팔레스타인의 人種抗爭 寫眞은 亞剌比亞人暴動을 鎭壓하는 英國警官隊

英極東軍大演習
假想敵國은日本
香港新嘉坡中心으로

【上海發電】 英國은 最近의 極東形勢에 重大關心을가지고 新嘉坡와 香港의 兵備充實을 圖하고 防備의强化를 進行中인데 英國極東軍은 新嘉坡의 要塞도 完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來八月中旬을 期하야 新嘉坡要塞와 空軍海軍의 聯合에 依한 大攻防演習을 擧行하기로 決定하엿다 이는 日本軍의 上陸作戰을 想定하는것으로보여 香港도 作戰區域에 包含될模樣이다

人種抗爭甚極

激昂한 亞剌比亞人 『聖地』로 進軍開始
팔레스타인에서 英人과 猶太人驅逐코
同地治安確立決議

【암만(트란스요르단)二十六日發同盟】 聖地팔레스타인의 亞剌比亞人과 猶太人의 鬪爭은 依然 팔레스타인政廳의 嚴戒裡에 繼續되고잇다 트란스요르단의 亞剌比亞人은 팔레스타인政廳의 彈壓政策에 激昂하야 同胞救援의 旗下에 『聖地進軍』을 企圖하게 되엇다 特히 酋長二十餘名은 二十六日 암만에서 大會를開催하야 左의 重大決意를 表明하엿다

一、팔레스타인 地方으로부터 英國人과 猶太人을 驅逐하고 同地方의 亞剌比亞人의 治安確立을 期하여야 할것이다
一、以上의 目的을 達하기爲하야 베드윈族의 精銳一萬을動員하야 요르단河를건너 팔레스타인進軍을 斷行할 用意가잇다

宗敎團은 右決議를 國王아브도라殿下에게 提出하고 亞剌比亞民族의 總意로 國王의 裁斷을 要請하엿다

【암만(트란스요르단)二十六日發同盟】 種族鬪爭에 蹶起한 亞剌比亞人은 北方 시리아境에 隨時軍隊를 集結하야 佛軍南下에 備하고잇다고 傳하야 命令一下팔레스타인에 進軍하도록 待機中이다

아브도라殿下 局地的解決强調

【암만(트란스요르단)二十六日發同盟】 트란스요르단國王 아브도라殿下는 宗敎團의 決議를 採擇하고 팔레스타인地方의 亞剌比亞人과 猶太人의 騷擾를 局地的으로 解決하엿다는 旨를 强調하엿다 아브도라殿下께서는 英國으로부터 年一萬四千磅의 俸給을 밧고잇는關係上 끗까지 同騷擾를 局地的으로 解決할것으로 觀測된다

「葵」「菊」兩驅逐艦 青島、塘沽에 急派

【旅順二十七日發同盟】 旅順要港部에서는 天津의 中國稅關監視船의 不法事件을 重大視하고 北中抗日情勢의 最近의 重大性에 鑑하야 二十六日夜 驅逐艦「菊」을 青島에 「葵」를 塘沽에 各各 急行케하엿는데 時節이 時節이라 要港部는 자못 緊張을 示하고잇다

【天津二十六日發同盟】 大榮丸事件에 關하야 旅順要港部는 다시 現地의 實情調査와 巡邏警備를 爲하야 驅逐艦「菊」을 派遣하기로 決定하야 同艦은 二十七日 塘沽에 到着할 豫定이다

話題解說 比例代表制

廣田內閣의 所謂 庶政一新政策의 第一着手로 議院法과 選擧法을 改正하기로 決定하고、昨二十六日의 閣議에서 이에關한 調査委員會를 正式決定하엿다。 이제 委員이 任命되는 卽時로 이에 調査에 着手할모양인바、그 結果로써 어떠한 選擧法이 採擇될는지 모르거니와、이제 聞知한바에依하면 民政黨側에서는 選擧法改正에 當하야 比例代表制를 採用하기로 決定하엿다고 한다。 그러면 選擧에關한 一方法으로서의 比例代表制란 如何한것이지 簡單히 살고해보기로한다

◇

比例代表法은 政見이다른 選擧人이 一定數以上 잇슬때에는 그各派에서 各各 그數에 應하야 比例的으로 議員을選出케하기爲하야 考案한 方法으로 選擧權 本位로 行케하는同時에 少數者의 意見도公平하게 議會에 反映시키자는것이 目的이다。 元來比例代表制라하여도 이目的을 達하기爲해서는 여러가지 方法이 잇다。 그러나 그모든 方法을 通하야 알아두지안흐면 안될 重要한 二觀念이 잇스니 其一은 當選標準數 又는 當選商數요 其二는 投票의 移讓이다。 當選投票數라는것은 候補者가 當選者가되에 必要한 票數를 말하는것으로 이當選標準에 達하는 選擧人이 集合하면 늘 一人의 代表者를낼수잇게하는것이 原則이다。 이當選標準數를 定하는데는 헤어法、「도롭」法의 二種이 잇다。 다음 投票의 移讓이라는것은 比例代表制의 根本精神이어서 모든投票로하여곰 可及的 效果잇게 하자는데 잇스므로 實質上 無效投票에 끗치기쉬운 投票를 最少限度에 끗치기爲하야 案出된것이 投票의 移讓이다 卽 一候補者가 이미 當選投票數에 達하고도 過剩投票가 잇을때에는 그必要外의 票는 이것을 他候補者에게 移讓하야 그票를 有效하게하자는것이다 그러므로 到底히 當選投票數에 達할 可望이업는 落選投票者의 得票도 無意味하게 버리지안코 이를 他候補者에게 移讓하야 그票를 活用케하자는 方法이 잇다。 그럼으로 그移讓方法의 如何에 따라 決定하는 單記移讓式과 比例的 候補者名簿에 對하야 投票케해다가 共同名簿를作成한 어떤派의 候補者間에 移讓하는 名簿式比例代表法이 이것이다。

◇

그런데 單記比例代表法에도 헤어法과 「풀라」法이잇고 名簿式比例代表法에도 連記名簿式과 單記名簿式이잇다。 前者는 瑞西式比例代表法이라고하고、後者는 「돈트」式比例代表法이라고한다。 「헤어」法은 英國大學選擧區、愛蘭、英植民地一部와 米國地方團體에서 이를 採用하고 「돈트」法은 白耳義에서 採用하고잇다。 前記 瑞西式은 瑞西에서 行하고잇다。

『規約』改正보다도 『人間』改造가必要
聯盟理事會開幕

【주네브二十六日發同盟】 第九十二回聯盟理事會는 二十六日午後五時(日本時間二十七日午前一時)부터 聯盟新會館에서 開會하고 英國代表이든外相司會下에 聯盟改組案에 關하야 協議를遂하얏다 劈頭에 이든外相은 차노外相으로부터 伊太利政府는 理事會에 參加치안는다는旨의 通告를接受하엿다고 報告한다음議事에 들어갓는데 伊에 兩國間의紛爭에 關해서는 豫想에 反하야 本問題는三十日에開會할總會의 議題에上程되어잇슴으로理事會는아모런決定을 내릴수도업다는 簡單히 處理하엿스므로 이經過를 聽取하려고 出席한 에디오피아代表라스·나시브氏를 啞然케하고 이어서 聯盟規約改正問題의討議를 開始하엿는데 劈頭에 智利代表비크라氏는 聯盟規約의 改正은 大明總會 又는 九月의 總會에서 審議할것이라고 提唱하고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規約改正으로 聯盟이 改善될는지 그與否는 疑問이다 今回의 紛爭에서도 聯盟規約은 失敗하지안햇고 聯盟國이 規約을 適用치안햇슬 뿐이다고 一流의 辯論를 述하야 暗에 伊太利政府를 徹底的으로 痛擊치아니한 聯盟各國을 痛擊하고 다음 羅馬尼代表 티투레스코外相은 리트비노프代表의 主張을 支持한後 말을 니어 全世界列國에 戰爭危機를 孕胎하고잇다 聯盟本來의 役割을 妨害함과 如한 改革을 行함은 不當하며 改革할것은 『規約』이 아니다 『人間』이오 規約改正의 모든 具體的提案을 檢討할는지 規約을 나쁘게함과 如한 提案에는 絶對로 贊成할수업다 小協商國은 局地的安全保障協定에는 贊成이나 國際間의 平和一體도 는 不可分이라는것을 잊지안코 면안되다 佛國代表델보外相은 簡單히 規約改正問題에 關하야 理事會가 注急的인 決定을 避하도록 要請한 模樣인데 各國代表의 發言主張을 要約하야 規約改正問題에 關하야 來週에 開會할 總會에서 各國代表의 意見을 徵하야 慎重檢討하기로하고 理事會는 그까지 審議를 延期하는것이 조흘줄안다」고 說論하야 各國代表가 異議업시 理事會는 午後七時 散會하엿다 理事會는 二十九日에 續開될 豫定이다

에國의 事實上 不存在를宣言?
聯盟法律專門委員會

【주네브二十六日發同盟】 聯盟理事會는 드듸어 二十六日午後五時부터 聯盟新館에서 開催되는데 이든英外相、델보佛外相、아브놀事務總長等이 協議한結果理事會는 總會에 對하야 制裁撤回를 勸告하고 또 伊太利의 理事會를 내세우지안코 漠然한 他國領土의 武力奪取의 非難決議案을 議決케할 委員會와 法律專門委員會와를 設置할러이라고 傳하는데 法律專門委員會는 獨立國에디오피아는現實로 벌서 存在치안흐므로 九月의聯盟總會에는 代表를 出席케할 必要가업다라고 宣言할러이라고 보이므로 聯盟도 暴상히 對岸의 獨立國의 滅亡을 觀而不見할것으로 解釋되다

단치히自由市 獨立運動을開始
獨立宣言發表決定

【단치히廿六日發同盟】 단치히自由市의 나치스黨員은 本國政府의 東漸主義에 呼應하야 過般來 活潑한 暗躍을 開始하야自由市의 政情은 動搖하고잇는데 二十五日 獨逸海軍의 精銳巡洋艦라이프치히號 入港을 機會로 俄然 獨立運動으로 轉化하야自由市의 나치스首領홀사氏는 二十七日을 期하야 獨立宣言을 發表하기로 決定하엿다고하며 同氏는 右宣言에서 聯盟高級委員레스터氏의 政策을痛烈히 攻擊하고 聯盟의 監督制度가 全혀 有害無益이란 所以를 指摘하야 聯盟의 無力을 攻擊하고 自由市의 獨立을 宣明할 意圖라고 傳한다

八面鋒

◇ 制裁에 對한 善後處置로 二十六日부터 壽府에 또 聯盟理事會가 열리엇다。
◇ 規約十六條란 鐵條網을 누가 처노앗든고、眞所謂自繩自縛의 喜劇。
◇ 에디오피아皇帝가 親히 理事會에出席하시고자 壽府에出馬。
◇ 徒勞가되다할지라도、效果가업다할지라도 最後까지 祖國의 處地를 呼訴할만은 悲壯。
◇ 豫防하자는 注射를맛고 三十九名이 病에걸려죽엇다고。
◇ 서투른 衛生은 도리혀 不衛生의結果를 낫는法、自信업는노릇은 집어치움이 若何。

波蘭及南米諸國 制裁撤回를通告

【주네브二十六日發同盟】 波蘭代表베크外相은 二十六日 聯盟理事會議長 이든英外相에게 對하야 對伊制裁를 撤回하기로 決定하엿다는旨를 通告하엿다 同時에 파라과이、에콰도르、피레、智利、祕露代表도 覺書를 提出하고 制裁放棄를 이든議長에게 正式通告하엿다

全朝鮮武德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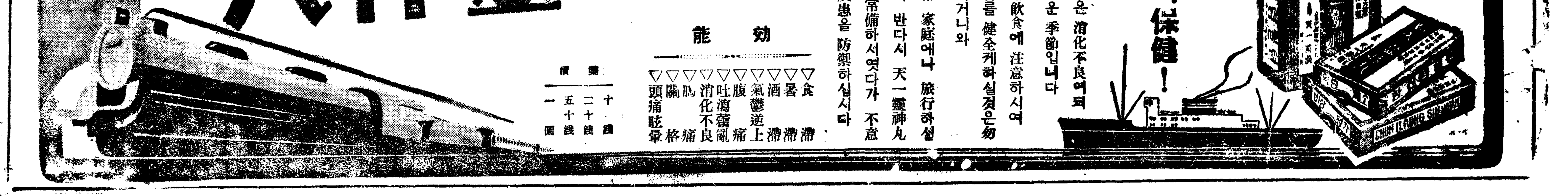
大日本武德會朝鮮本部主催 第八回全朝鮮武德祭는 二十七日午前八時부터 警察官講習所道場에서 宇垣總督臨場 今井田總監、田中 富永兩副總裁 各道支部長 三宅師團長 佐技軍參謀長 持永憲兵司令官以下 弓道代表選士 薙刀의女流選手等 千數百名參列下에 盛大히 擧行되엿다

警察參考館落成式

市內光化門通에 新築中이든 警察參考館落成式은 二十七日正午부터 同館內에서 盛大히 擧行

人事·集會

▲井坂平南警察部長 廿六日入京 備前屋投宿
▲瀨戶江原警察部長 同上 旅館投宿
▲八木黃海警察部長 同上
▲山下咸南警察部長 同上
▲筒井咸北警察部長 同上 備前屋投宿
▲古川平北警察部長 二十八日入京 朝鮮호텔投宿豫定
▲白化東氏(天主敎延吉敎區主敎) 三十週年記念式 人事次來社
▲天一藥房主催滿洲視察團一行 二十七日午後六時歸京
▲批判社 今般電話光化門 一六二三番開通



商報에 "빌딩"을 印刷 堂堂大會社行勢

連鎖店募集을 標榜코 二萬餘圓騙取 綻露되자 張社長은 逃亡

最新通信詐欺

시내동대문서 사법계에서는 수일전부터 종로(鍾路)사정목백팔십팔번지 사층루의당당한 "빌딩"의방하나를 빌려가지고잇는정신흥업사(正信興業社)에 의혹의눈을던지고 비밀리에 내탐한결과드디어 근래에 보기드문유령회사인것이 판명되자 동회사부사장격 변명개(辨明係)류남긔(柳南基)(三一)와 하조발송계 송재명(宋在明)(三一)을 검거하고엄중취조하는한편 도망한 사장장정순(張正淳)(三一)에게는전조선에 지명수배망을느리고 체포에노력중이다 그리고 이유령회사의내용을들건대이러하다 이회사는 전위와가티"빌딩"의 한방을빌려가지고잇는데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상보(商報)에는 "빌딩"전경을 사진으로너허 위선 큰회사라는것을 선전하고 외교원을전조선각지에 파견하야 련쇄점(連鎖店)모집을 표방하고 갑종에는 천원 을종에는 오백원 병종에는백원의 보증금을내게한후 이금액의 일할에지나지못하는 상품을 발송하고 각처에서들어오는 항의에대하야는 전기 부사장격변명개의 류남긔란자가 이리저리로피개를대여 온것이다 그리고 지난오월(五月)팔일 개업한이래 이들의 독수에걸린 피해자는황해도연백군 류곡면 영성리(延白郡柳谷面永成里)잡화상주창서(朱昌瑞)의오백원 평산군 신암면백천리(平山郡新岩面 白川里)윤영열(尹永烈)의 이백사십원을 비롯하야 남부각지에서 여든다섯건에 삼만여원이란만흔금액에달하며 취조가진행함을따라 상당히 여죄가만흐리라고보인다 그리고 도망한사장인 장정순은이와가티 지방에서는 선량한사람들로부터 불과한달동안에 수만원의돈을 버려가지고는 시내각처에삼사명의축첩까지하고한동안영화의단꿈에취하여온것이라고한다

通信詐欺에 利用된"빌딩"

市內各處에橫行든 "가짜"京電社員!

電燈을檢查後罰金과料金橫領

"장개"미천의辦出策

장가는 들고십되 혼인비용이업서 그것을짜내이고저 전긔회사원으로 거즛꾸미고 도라다니며 공갈사긔해오다가 경찰에 붓잡힌사나이——이십륙일 오후네시 한강통(漢江通)철도관사 송미(松尾)의집에 자칭경전(京電)사원이라는젊은이가와서 전등을검사하다 고촉수가더하니 벌금을 내이라는등공갈을하므로 그집주부가수상히게생각하고 곳이사실을 소관파출소에 알리여 그사나이를붓잡어다가 문초한결과이는 경긔도 룡인군수금면(龍仁郡水金面)류성철(柳聖喆)(二一)로 허영에들뜬남어지에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에잇는김모(金某)의 음식점에 안잡자기로잇는 리금자(李金子)(二一)라는 처녀에게반해서 그와야혼을하기는 햇스나혼인비용을 판출할길이업서 한편를생각하고 그가티 경전사원으로 가장한후 이집저집에 드러가 전등촉수더쓴다는것을 구실로삼고 공갈사기해먹어온것이 로 그금액이 무려수백원에 달한다고한다

세월업는人力車夫 生活難自殺未遂

交通戰線의慘敗者

이십륙일 오후여덟시경에 시내인사정(仁寺町)이백십오번지 리순봉(李順奉)(三五)이라는 인력거꾼이 자살을하려 「아이제」라는 소독수(消毒水)를 만히먹고 신음하고잇는것을 시내청진정(淸進町)정재웅(鄭在雄)의원에서 급히 치료한결과 생명은 무사하다는데 생활난으로 비관한나머지에 그와가티 죽으려든것이라고한다

喪妻햇다속이고 몸亡처준사나이

나는 몰른다는 남편을걸어 위자료를 청구하는소송——부내관수정(觀水町)일백오번지 리경순(李景順)은 충북단양군단양면하방리(丹陽郡丹陽面下防里) 김종근(金鍾根)을 상대로 위자료오천원을 청구하는소장을 이십팔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 제긔하엿는데 소장내용을보면 원고인 리경순은 피고김종근이 상처를하고 전처소생아흡살먹은아들하나가 잇다는말을 신용하고 소화칠년 오월이십팔일에 결혼을하야 이래가티 전과 관수동에서 사러오든중 그해 가을에 죽고업다든 피고의 안해가 돌연원고의 집에 나타난다음부터 피고내외는 원고를 몹시학대하야 원고는 할수업시 친정으로 도라갓섯는데 그의배속에는 벌서피고의 씨가들어 소화팔년칠월이십팔일에 딸을낫케되야 원고는곳 피고에게 어린애낫다는 통지를하고 호적에 올려달라고하엿스나 피고는 자긔딸이 아니니 어서 그애의애비를차저주라는등 모욕만하고 종시돌보지안하야 원고는생활이몹시 곤궁할뿐만아니라 정조만 유린당하야 정신상육체상 고통이만흐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오천원을 내라는것이다

"間共"事件의死刑囚 三名또再審請求

殘餘八名도合流할듯

간도공산당사건사형수 열여덜명중 주현갑(周現甲)등일곱명이이십륙일 경성복심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엿다는말은 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십칠일에 조동률(曹東律)박금철(朴金哲)김광묵(金光默)등세명이 또재심을청구하야 모다열여덜명중 열명이재심을 청구한셈인데 남어지여덜명도 역시 재심청구를 할것으로 보인다

緋緞요에싸서棄兒

의문의기아(棄兒)사건=이십칠일 오전열한시경에 시내 관철정(貫鐵町)일백사십삼번지 홍련긔(洪蓮基)의집 대문안에 나흔지 열흘가량박게안된 계집아이를 버려둔것을 그집주인이 발견하고 소관종로서에 알려와서 그서에서는 공(孔)순사부장이 현장에 나가서 엄밀조사를하엿는데 아모런금발도업서 그범인을 알수업스나 아이를 부드러운 옷으로싸고 또비단으로서 싸잇는것을보아 단순한생활난으로 버린것이아니고 그리면에는 무슨불의의 꾸절등이 숨어잇는듯하다 발표 그서에서는 엄밀수탐중이다

"治維"違反과幇助罪로 朴英出等一回公判

京城地方法院刑事部法廷에서 오는七月十五日에

비밀결사 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려든혐의로 경성지방법원 예심에걸린지 일년남어지에 지난오월삼십일 예심결정이되야 치안유지법위반및 그방조죄명으로그법원 공판에 회부된 박영출(朴英出)등열명에 관한 제일회공판은 오는칠월십오일 그법원형사부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향천(香川)검사 관여미테 열리기로되엿는데 당일출정할피고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朴英出 ▲李仁行 ▲金舜鎬(女) ▲孔成檜 ▲朴鎭洪 ▲沈桂月(女) ▲許和正 ▲金萬基 ▲權五相 ▲金潤會

呼父呼子四十五年 全財產은남에게遺贈

아비處事에 憤慨한 아들이 扶養料請求訴

法廷에나타난宦官의家庭爭議

마흔다섯해동안이나 정성으로섬겨온양부가 인제와서돌보지안코 내어쫏치나 부양료(扶養料)나한달에오십원식십년동안것 륙천원을밧도록하여달라고 이십칠일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 소송을제긔한양자가잇다 원고는경긔도양평군양서면도곡리(楊平郡楊西面陶谷里)림호준(林浩俊)으로 그의양부인부내제긔정(祭基町)일백사십팔번지 화관려남식(呂南植)을상대로 부양료를 달라는것인데 소장을보면 림호준은 지금으로부터사십오년전 그가일곱살때에 피고에게 양자로 들어가서 지금 오십이세가 되기까지 정성것 양부인피고에게 봉양하야 재산약오만원가량을저축하게되엿는데 피고는원래 성질이괴악하야 원고를늘시 학대할뿐만아니라 소화이년에도 원고를걸어 파양소송(罷養訴訟)을 제긔하엿다가 취하하드니 소화구년에는 원고부부를내어버리고 지금잇는전긔재긔정으로 이사를간다음 원고를또걸어 양자연조무효소송(養子緣組無效訴訟)을제긔하야 결국패소되자 피고는원고를 더욱더옥몹시학대하며 도한충도주지안코 재산은전부소외(訴外)려인록(呂寅錄)등수명에게 유증(遺贈)키로계약까지작성하야 원고는 지금굴머죽을곤경에 빠젓스니 부양료로피고는 원고에게 전긔한바와가티륙천원을 내라는것이다

不良飮料와果實等 一齊히嚴重團束

"사카린"과"着色의元"使用者엔 鍾路署서嚴罰方針

수일전부터 서내조로서 위생계에서는 관내에 잇는 「아이스케익」을파는 장수들을 모조리 조사하야 그원료와제품을 엄중조사하엿다함은 귀보하엿거니와 그결과 시내청진정(淸進町)오번지 리창옥(李昌玉)(三一)등 여덜명은 모다 몸에해로운 「사카린」을너허잇는것이 판명되여 이십칠일 드디여 단연히 엄중한 사법처분을내렷다 이와가티 「사카린」을 넛는것뿐만아니라 일반 어름과자장수들이 어름과자의 착색료(着色料)로 쓰고 잇던 착색의원(着色의元)이라는것을 검사한 결과 몸에 해독이 되는것이분명하야 이를모다압수하는동시에 금후로는 착색료로는 식물성(植物性)의것을 제외하고는 전과와가튼 해독물을 일제히금지하기로되여 이를 범하는자도 단호하게 처벌할터이라한다 이리하야 오는이십구일과 삼십일 이틀동안에 종로서관내에 잇는 각상점과 로점(露店)등을 모조리 훌터서 불량한 청량음료수와 과실등을 단호히 취체할예정이라고한다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陌峴 本舖 普生藥房

船舶職員試驗 高城長箭에서

체신국에서는 칠월십일일부터강원도 고성군신북면 장전리(高城郡新北面長箭里)어민 훈련소(漁民訓練所)에서 림시선박직원(船舶職員)시험을 뵈이기로 되엿다 시험을 치르고시픈 사람은 시험개시긔일오일전까지 원산해사출장소(元山海事出張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타한다 시행은 연안을종이등운전사(沿岸乙種二等運轉士)시험과 연안병종(丙種)운전사시험과연안발동긔선삼등긔관사(發動機船三等機關士)시험의 세가지를 뵈일터이라한다

東光醫院 X光線新設 無料로奉仕

부내관철정(貫鐵町)대광교(大廣橋)부근에잇는 동광의원(東光醫院)에서는개업이래 일반환자에게 실비로 친절히 봉사하여오든중이엇섯는데 이번에막대한경비를들여 『엑쓰광선과』(X光線科)를 새로설치하고 그신설기계로무료로 엑쓰광선을이용하여 건강진단을하여주기로되엇는데 일반폐결핵환자와 불건강한사람에게는다시업는조흔기회가될것이다(광고)

貫鐵町六三番地·大廣橋附近 東光醫院 電話(光)四〇番

天氣子報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저녁은 어쩌면 小雨가 올것이다 明日도 어쩌면 小雨가 올것이다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二九度二
同日最低 一〇度一
今朝最低 一九度
今日正午 二六度九

訓練院頭에展開된 女子스포츠殿堂

陸上、籠、庭、排、卓球一齊開幕 五千餘應援團動員

市內各女子中等學校의 總動員으로열리는 陸上競技、籠球、排球、庭球、卓球等 五種目競技大會는豫定과가티 二十七日 午前九時十七分부터 京城運動場과 京城女子實業學校講堂에서 一齊히開幕되엿다 母校의 名譽를질머진女學生들을 聲援하려 이날하로를 休校까지하고 모힌五千餘名의 各校應援團이 各競技場에分除하야 京郊의交響曲은 訓練院頭에 꼿깃츨을롯다 이날各種競技戰績은 다음과갓다

◆…陸上競技

【六十米第一豫選】A組1金英子(女高普)八秒八 2李孝淑(進明)八秒八 3樋扳(龍谷) B組1佐佐木(一女)八秒六 2藤田(二女)九秒 3姜喜安(女高普)九秒 C組1神原(女實)九秒 2鎌倉(二女)九秒 3李喜永(同實)九秒 D組1山田(仁女)九秒一 2片山(一女)九秒二 3道家(二女)

【百米第一豫選】A組1溝坂(龍谷)一四秒 2山田(仁女)一四秒六 3田仲(二女) B組1佐佐木(一女)一四秒 2金泳喜(同德)一四秒一 3李相姬(女高普)一五秒一 C組1金英子(女高普)一四秒 2柳德梭(同德)一五秒一 3久枝(女實) D組1李孝淑(進明)一四秒六 2片山(一女)一五秒 3鎌倉(二女)

【投砲丸決勝】1早川(二高女)八米〇四 2牧山(二高女)七米四三 3中野(一高女)七米六二 4大山(仁川)七米四〇 5久松(實業)七米三三 6谷瀨(龍谷)七米〇八

【走高跳決勝】1本山(二高女)一米三〇(本大會타이記錄) 2伊藤(龍谷)一米二八 3大仁田(一高女)一米二五 4牧山(二高女)一米二〇 鄭雲玉(女高) 小林(龍谷) 池田(女實) 三好(一高女) 津島(一高女) 西原(一高女)

◇…籠球

全朝鮮女子籠協朝鮮支部主催의 全朝鮮女子選手權大會第六日인 B級首位爭奪戰은 二十七日午前十時부터京城運動場코-트에서열린바 前日에單一點差로敗한女高軍 깃까지奮戰하엿스나 結局十七對八로一高女에게慣敗하야 A組의優勝者 進明과 一高女가 決戰케되엿다

一高女17(10…6 7…2)8女高

◇…排球

朝鮮排球協會主催의 京城女子中等排球大會는 二十七日 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한바 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龍谷2(21…21 17…11)0一高女
女高2(21…21 5…6)0淑明
二高女2(21…21 10…6)0進明

◇…卓球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一回京城女子中等學校卓球리-그戰은 二十七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女子實業學校講堂에서 貞信、京城女高、淑明、同德、女商、第一高女、第二高女、女子實業의 八個校가參加하야 開始되엿는데 夕刊마감까지의 各校戰績은다음과갓다

【同德】勝3…0【女實】
姜彭玉 3…0 松原
柳順男 3…0 松岡
李喜順 3…0 石田
許完順 不…戰 原
李孝根 不…戰 小野

【淑明】勝3…0【貞信】
李巳相 3…0 金順玩
朴長順 3…1 辛春卿
任昌順 3…0 李仁淳
王貞順 不…戰 梁玢雲
崔敬洵 不…戰 金庚林

【女實】2…3勝【二女】
後藤 0…3 大石
石田 3…2 鹿島
松岡 3…1 門田
原口 1…3 西田
松原 2…3 橫藤

【女商】勝3…1【一女】
卞先愛 3…1 小出
金順基 1…3 三島
尹明鎭 3…2 遠山
李相寶 3…0 大輿
金英珣 不…戰 遠藤

◇…庭球

京日主催의 第十八回全朝鮮女學生庭球選手權大會 第一日의 開幕戰은 卄七日午前九時半부터京城運動場「코-트」에서 貞信、梨花、同德、進明、淑明、海州女高普、京城女高普、第一高女、第二高女等의 八個校의 選手入場式이잇슨後 昨年度優勝校 京城女高普로부터 優勝旗及優勝盃의 返還이 끗난後 貞信對梨花戰으로 게임은開始되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 各校戰績은다음과갓다

◇第一回戰 【貞信】【梨花】勝
(第一라운드)
× 高東林·金旭漢 3…4 申齊成·宋姬完 ○
○ 崔寶鏡·朴殷善 4…2 李惠卿·李圭弼 ×
○ 柳志順·崔大福 4…1 崔德涉·南基玉 ×
(第二라운드)
× 崔寶鏡·朴殷善 2…4 申齊成·宋姬完 ○
(第三라운드)
× 柳志順·崔大福 2…4 申齊成·宋姬完 ○

◇第二回戰 【淑明】勝【二女】
(第一라운드)
× 金貞子·鄭世龍 0…4 神保·古賀 ○
○ 孫玉姬·李圭淳 4…0 木村·毛利 ×
× 李福順·鄭姬永 1…4 松尾·福田 ○
(第二라운드)
× 孫玉姬·李圭淳 1…4 神保·古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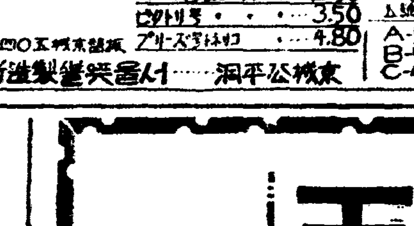
上으로부터 熱狂한 應援團、庭球、排球、投砲丸、籠球、百米스타-트光景(卄七日京城運動場에서)

女性스포-츠의豪華版!

新發賣品 朝鮮理想號
얌마—動力用脫穀機
稻麥兼用

能率絕對 機械堅牢
撰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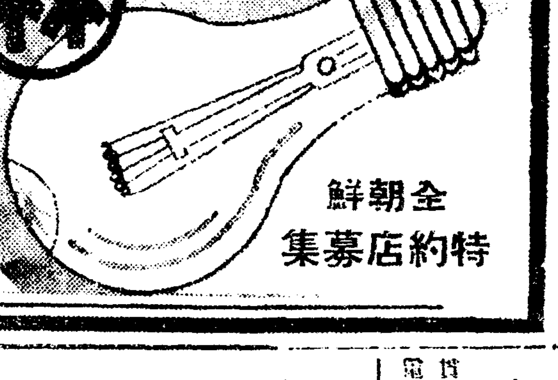
七月新譜 빅타-레코-드
빅타-大衆盤

斯界定評公認 서울아—式

蹴球靴 五圓五拾錢
ラケット
フットボール
A-5.50 B-5.00 C-4.50
A-4.50 B-4.00 C-3.50
京城公平洞 서울運動具製造所

개량담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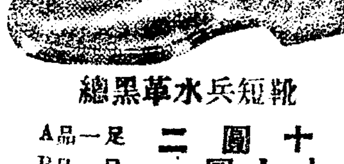
京城府鍾路三丁目六九
製造發賣元 德昌工業社
型錄及定價表送呈합니다

朝報案內
指導 社員二名至急採用 固定給月收百圓以上 活安定年齡二十五歲以上有經驗者 又는官公吏銀行會社退職者는特別優待 七月十日까지來談事 京城永樂町二ノ一 阪谷生命朝鮮支店

瓦斯入 林電球
朝鮮唯一의大工場에서 產出하는優良鮮產品

林電球製作所 京城府新堂町四〇九 電本局五二六一番
全朝鮮 特約店募集

朝鮮料理 天壽閣
風景과藥水의 安靜寺後麓
京城下往十里町 電本②四四九二番

新古洋服靴の大安賣
今回卸問屋が御値段にて一品にても御送付致します

◎海軍省拂下防水布外套(黑色)(中古品) 本品ハ現在海軍ニテ御使用中ノ中古品ニテ 一等品 一着ニ付 二圓九十錢
◎鐵道省拂下防水外套 黑厚ゴム引肩二重防水着用ニ絕對安全品ナリ 一等品 一着ニ付 一圓八十錢
◎海軍拂下水兵短靴 本品は海軍の拂下水兵短靴を改造したる中古品にて新品半張革を打ち堅牢無比

總黑革水兵短靴 A品一足 二圓十錢 B品一足 一圓九十錢
◎軍隊拂下改造編上靴 本品は軍隊拂下中古靴を改造し上張工夫を加へ新革を打ち込み向上實用

陸軍拂下改造編上靴(茶利革) 一足 二圓二十錢
海軍陸戰隊用黑革編上靴 一足 二圓五十錢

◎海軍省拂下品 水兵白本麻製セーラーズボン A品 一圓三十三錢 B品 一圓

◎新品 水兵紺セーラーズボン 二円三十錢
ハガキで御注文下されば一品でも小包代金引換で送ります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一九番·振替名古屋一一五一一番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入學生圖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浪花館
六月二十五日より六月三十日まで 三回興行 入場料金 四十錢 十六錢
◀人生のお荷物 ◀僕の春 ◀米國の機密室

優美館
怪奇!快活의二重奏인冒險活劇篇最終週 六月二十六日부터最特別大興行
米마스코트大作全發聲活劇 巨匠알만드·시에파-氏大作 流線怪盜列車
空中殺人光線
疾風蜘蛛網
次週二十日부터 朝鮮名畵 무지개
貫鐵町 電光三一九五 優美館

連載野談 (五〇)

弓裔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여전만은사양 (十)

경선봉이 군사중에도 매우령리한 군사를 불러 한때는 녀자복색을 채리고 한때는 보발군의 모양을 채리여 각각 비밀히 어떤 계교를 일은뒤에는 곳 궁노수(弓弩手)를 불러 활과 살을 만히 준비하게 하얏다。

그런데 경선봉의 령을 들은 보발군은 밤이 깁기를 기달리여 아아을노진여때 어훈려 몸을 숨겨가면서 아아을노진의동정을 살피는양을 보혓다。

이때 아아을노의 수문장이진문을 구지닷고 노피 대우에올라서 원근의 형편을 살피든중 색다른 군사가 몸을 숨기며 무엇을 살피는양을 보자。

「올치。저게 고려군의 보발군이로군。」

하고 곳 그뜻을 아아을노에게 알리엇다。

아아을노는 선봉장 울합을불러 가만히 뒷문을 열고 나가서 그 보발군을 사로잡어 오라 명령하얏다。

울합이 날낸군사 몃사람을데불고 뒷문으로 나가 곳 그보발군을 잡어왓다。

아아을노가 그보발군을 장하에 잡어업치고

「너히는 어찌해 감히 대군진여페를 범해 왓는고?」

「김선봉장이 염탐을해 오라기에 왓소。」

「염탐을 하다가 이러케 잡히면 죽을줄을 몰낫는가?」

「잡히면 죽을줄을 아나 우선 장수의 명을 복종하지아니하면 죽을것이니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기는일반인이상 장수의 명령이나 복종하다가 죽으려하고 왓소。」

「그런데 너의 군사가 여긔온지 벌서 여러날이어늘 어찌해 싸움을 아니하는고?」

「그것은 말못하겟소。」

「어찌해 말을 못해。그 내용을 말을 하면 살리고 아니하면 죽일테야」

「죽으면 죽엇지 그말은 못하겟소。」

「끗끗내 말을 아니할테가?」

하며 아아을노는 곳 칼쓰는군사를 불러 죽일거조를 채리엇다。

그런뒤에 아아을노가 다시크게 소리를 질으면서

「죽어도 말을못할가?。」

하고 말을아니하면 곳 죽일듯이 위협하얏다。

어때 고려보발군은 크게 겁이난 양을 보이며

「꼭 살여만 준다면 자세한말을 다하겟소。」

「고려의군졸중의 자세한 말을 다하면 죽이지아니할뿐만 아니라 도리혀 큰 상을 줄테야 자세히 말해。」

「다름이아니라 조원수가 별안간 병환이 나서 자리에누으면서 인사불성이되고 김선봉역시 또박게 한질이 생기어서 쌈을할수가업게되엇소。」

「또 다른일은 업나?。」

「그것은 군사가되니만큼 자세히 알길이 업소。」

「그러겟다!。」

하고 아아을노는 그보발군을 다른곳에다 머물게하얏다。

그리고 그밤으로 불노써 고려진을 치기로 물노흘 채비를 채리며

「고려군장수가 모두병이든것은 나로하야곰 큰수고를 드리지아니하고 큰공을 일우게하는것이니 이것은 한울이 분명히 도움는 일이야」

하며 아아을노는 무한이 깁버하엿다。

그런데 이때수문장이 또 들려와서

「진문아프로 여러녀자가 보퉁이를 각각 지고 다름질을하는양이 분명 피란하는 녀자들가트니 어찌하오리까?。」

하며 아아을노에게 그녀자들의 조처할것을 물엇다。

「하나도 빼지말고 모두 잡어와야지!。」

하고 아아을노는 그 녀자들을 잡어다가 그중에서 어엽뿐 녀자는 자긔장중에 두어 객회를 풀고 다른 녀자는 군사의 객회를 풀어 줄것을 선뜻 생각하얏다。

그리고 곳 선봉장 울합을 불러서 뒤문으로 빨리나가 그녀자들을 잡어오라 명령하얏다。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薄謝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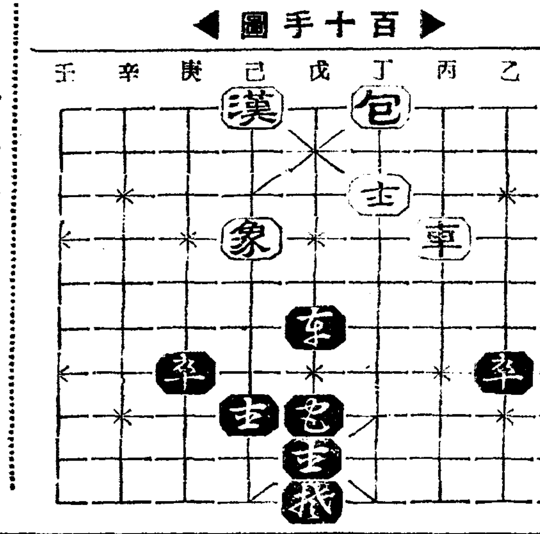
★曆★

六月二十八日(日)
建甲午五月大(初十日)
辛巳·金·房·閉
●祭祀裁衣에宜함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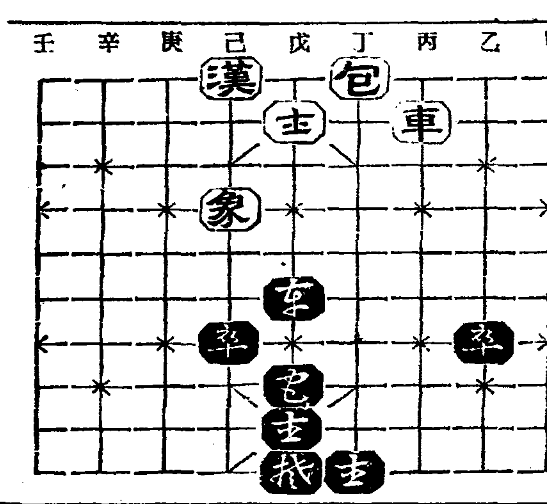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二)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戊九包—丁十
丙四車—丙十
己八包—戊九
丙七車—丙五
戊六包—己六
丙五車—丙四
庚七包—己七
丁三士—戊三
己六包—戊六
丙四車—丙三

母乳代用에最適
使用方法簡便

北海道ミルク (미루쿠)

·가장信用할수잇는煉乳·

明治製菓株式會社

驅虫藥
蛔虫 버려두면
어린이 살찌고
애가마른다

マクニン (마구닌)

効果만코먹기쉽다

●感嘆!!感嘆!!정말頭痛에썩조흔 ノーシン (노-신) 이다●

六月廿三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四時 六時半
〜次週보다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M·G·M·超特作映畵
晩春 (Flame Within)
하바-드마샬 안·하데잉 主演
◆M·G·M·超特作映畵
米國의機密 (Rendezvous)
원리암·포-웰 로사린드·럿셀 主演
完璧의刺戟作品、快力亂麻를풋으는듯한爽快무쌍의活躍에諸氏는拍手
◆日活特作映畵
花嫁日記
杉狂兒、市川春代、主演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六月二十五日부터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十時·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四十分始映
曲藝團 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主演…월터·럭스 원·스틔아트 監督
바이돌프·분라마니 푸라이슨…
百年前의地上最大의興行師바─남의一生一代의傳記를映畵化한怪物集
劇場 大怪奇 米國컬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깡크團 暗黑街總攻擊
가리-윙 主演
大都映畵社超特作品
親 二 人
根岸東一郎氏 監督
北見禮子 嬢 主演
麻浦桃花町 電話一三三番
桃花劇場

齒痛과頭痛·神經痛에는

回効散 (회효산)

物がものを言ふ

가려운데손이닷는기뿜보다도 아픈데써는듯히 잘듯는 藥의調法은 齒痛과頭痛에 마시면 잘듯는回効散의 効能은 愛用하시는분들은 잘아실것입니다

장님千名、눈뜬사람千名、여하튼宣傳廣告時代라하지만、結局은 物件이物件을 證明하는것도 當然、아무런誇張이업서도 回効散은効能이 速하야 安全하고 무엇보다 調法이라고 、評判이놉흐다、또한 神經痛에도 퍽잘듯는다 고 最近에는어떠한藥店에서나 굉장한人氣로 팔닙니다。

論보다證據

(東京帝國大學附屬病院에서 神經病、류마치스治療의特効藥으로서 推賞되고잇는貴重藥을 精妙하게配合하여잇는 回効散입으로써이다)

齒痛、頭痛、神經痛等에 困難밧는 분은 반드시한번 回効散을 시험하시라 一生의 寶배가 될것입니다

어떠한藥店에서나잘팔니는
安全·即妙·確實·廉價第一

主効
虫齒아픈데
니뿌리아픈데
니빨아픈데
頭痛
神經痛
류마지쓰
酬매드이아픈데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五圓
徳用(病院用)
十圓
二十圓

本舖 合資會社 森田製藥所
振替東京八九四八番
本店 東京市京橋區新富町三ノ二
支店 大阪市東區小橋元町一二四

뉴-욕에서대류행인 해수욕복

방금 뉴-욕에서 대단히류행되고잇는 해수욕복가운데 일본아가씨네들의 육체를가리기에 가장 그럴듯이 어울리는것을 서너가지 소개해드릴까요——사진의편쪽은 연록색 모직물로된원피-스형입니다 가운데것은 호박색(琥珀)에다가 가장 자리를하-야케흰것, 역시모직물로된투피-스형, 바른 쪽의것은 삼각형의소커-트가 달린흑색원피-스형입니다

家庭

시민들아 위하자 거리에 심은 나무

고마운 도회지의 풍치록음 한가지라도 꺽지말자

찌는듯한 폭양, 다는듯한 길바닥, 거리를 지내는 사람으로하야곰 거의 숨이 막힐듯하게 하는데도 양여프로 늘어 선 가로수(街路樹)의 푸른 입사귀로 인하야 얼마쯤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을 늣기게 됩니다。여름ㅅ거리의 가로수야말로 사막(沙漠)한가운데서 솟는 샘과도 가티 귀중한 것이라 우리 모도가 함께 가꾸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그러나 흔히 지나다가 보면 함부로 꺽고 건드리어 푸대접을 하지안습니까? 나무가 아모 것도 모르게망정이지 만일 알미 잇다면 사람의 행동을 오작이나 억울하게 녀기겟습니까? 금후로는 그러지 말기로 합시다。그래서 푸른 줄로 여름ㅅ거리를 잘 장식하야 노흡시다。

맨몬저는 일반 행인들이라든지 거리에 나와 노는아히들이 주의할점입니다。

(一)그 그늘미트로 지나다니거나 또그 그늘아래서 노는 것은 물론 조치요만은 탁 치고 건드리어서 뿌리를 흔들어야야 엇자 안습니까?

(二)자전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더라도 좀피하야 줄것이지 인정업시 드리 바더서야 쓰겟습니까?

(三)손버릇이 고약한 아이들은 돌이나 칼로꺽고 점이기까지 하니 그것은 나무로보아서보담도 그 아이의 버릇을 보아서 어른들이 금지할 것 아닙니까?

(四)손으로 코를 풀어 상관이 업다손 치더라도더 럽고 추하지 안습니까?

×

그다음으로는 길까에 상점이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의할 점입니다。

(一)나무에해로운 약물이나소금 물가튼 것을 휘휘뿌리어 주신다면 그 나무가 시들지 안 할래야 안 할 수잇습니까?

(二)그 나무 미테다가 다른 화초를 심어 놋는다는 것은 무방하되 흔축 즉 조안화와가튼 덩쿨을 올라서야 재미업지 안습니까?

(三)빨래를 걸어 놋는 것도의관으로나 또는 나무를 위하는 편으로나 다한께 재미가 적거니와 더구나 광고포장을 놓려친다든지 무거운 판장을 기대어 놋는다든지하여서야 쓰겟습니까?

(四)흙을 숩때 흔히 그 나무미틀 파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무뿌리를 말리어 버리는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

그나무가 누구 한사람의 소유는 아니지만은 본는 한 개인개인이 다각각 가꾸어 주어야합니다。더구나 가까이 집이나 상점을 가지고 계신분들일사록 특별히 가꾸어줄 의무가잇는줄압니다

아죽 어린엇슬때 만일 비바람에 쓸어지거든 이리키어도 줄것이요 또 정히 가믄때 나무가 마르거든 아침저녁으로 적한 물을 두어 빼께 쏘줌 앗기지 말어야 할것이요 버러지 이는때는 살충약도 좀 뿌리어 줄 것입니다。왜 하필 그런 일을 내가 하리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잇다면 그것은 우리인류의 공동생활을 조금도 리해하지 못하는 고린보요 째말이의 인간입니다。

가정의학

관절강직(關節强直)

문 저는지금 삼십사세된 남자이온대 지금으로부터 십사년전에 우연이 관절루마지스로알타가 관절강직이되야 양편다리구와 관절이놀지아니함으로 불구자로써 애닯은 그날그날을 불쪽에 보내고잇습니다 그런데 이곳의사의 진찰을 받는족 의사의말이 수술을하면 완지할수잇스나 심장이약해서 마취제를 쓸수업슴으로 수술도 할수업다고합니다 관절을수술하면 완지될수잇스며 또는 국소마취로는 불가능한지요? 자세히 하교하여주시요(一不具者)

답 수술에 의하야 어느정도까지는 낫습니다마는 완전한 회복은 곤난합니다 국소마취만가지고는 좀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 어느관절이지 모르거니와 하지(下肢)의관절이면 요추마취(腰椎麻醉)로 또 상지(上肢)의 관절이면 전달마취법(傳達麻醉法)으로 간편히 수술할수잇슬것이니까 반다시 전신마취가안이라도 될것입니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illegible])

家庭日光療法 ②

城大松井外科 文仁柱

(다)혈액에미치는 영향

일광광선은 적혈구(赤血球)를 증가식힙니다。또 백혈구도 증가식히며 더욱백혈구의 식균작용(喰菌作用)을 촉진(促進)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일광욕에 의하야 일시적이나 혈압(血壓)이 내립니다。또 일광을 쪼인부분은 혈관이 확대하야 충혈(充血)이생깁니다。그럼으로 혈액의 순환이 잘됨으로 치병적효과의 한원인이될것입니다。

(라)피부색소형성 작용

일광욕을하면 피부의살결이검어지는것은 누구나다 잘알고잇스며 이것이 일광욕을 실행하는 한원인인가 생각합니다。살결이 검어지는것은 생리적으로 잇는『메라닌』이라는색소가 더만아지기 때문입니다。여러학자의 학설에의하면 일광욕에 의하야 속히 검어지는이는 일광료법으로 병이잘나을수가잇다고 합니다。그리고 일광욕에의하야 검어진피부는 일반으로 저항력(抵抗力)이 강하다고합니다

(마)일광의발한작용

일광광선은 림파관(淋巴管)을 확대식혀서 그속에들은 림파액이 잘흐나들게하며 따라서 땀이잘나게 됩니다。이것은 일광의열의작용이며 또, 일광이 측접으로 한선(汗腺)을 자극(刺戟)하는결과라고 생각됩니다。땀이 날때에 우리몸의 해로운신진대사산물(新陳代謝産物)이 서겨나옴으로 이것도 일광욕의 효과의 하나일것입니다。

(바)일광이골격(骨骼)에미치는영향

일광은 골격의발육에 큰관계가잇습니다 기픈바다속에잇는 어족(魚族)은 그대부분이 연골(軟骨)로 되여잇다고합니다 이것은 태양광선이 기픈바다속까지 미치지못하기 때문이라고합니다。먼저 이야기한바와가티 구루병(佝僂病)은 일광광선의 부족으로 어린아해의 뼈에 변화가생겨 뼈가 연화(軟化)하기때문에 다리가 꼽으려지는것입니다。또 골절(骨折)환자를 치칩하고 일광이 잘들어오지안는 병실에두면 잘낫지를안호나 이때에 일광욕을 식히면 용이하게 속히 나음을 볼수가 잇습니다。

(사)근육에미치는 영향

일광은 근육의발육에도 큰관계가잇습니다。늘 누어잇는환자는 근육을 쓰지안홈으로 근육이 약해집니다。이때에 일광욕을 계속하면 근육은 잘발육합니다。이것은 일광의 자극에의하야 근육내의 혈액의순환이 잘됨으로 항상『맛사-지』를 하고잇는것과가튼 효과를 나타내는것입니다。

옥심이【十】

金廷漢 作 安夕影 畵

엽선 남녀는 흙골홈을 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맛잡고 내뺏다。옥심이가 몇번이나 넘어질번 하는것을 안은 손자게 껴안어가면서 바윗돌 타내리고 여울목을 섬큼섬큼 뛰여건넛다。

『아이구 내죽는다——』

급기야 뒤에서 먼저 외마듸 소리를 냇다。돌틈에 내꼬친것이다。

그러나 압선 남녀는 들은채만채, 공교로히 냇가를 비켜나서, 울묵한 보리밧 속으로 긔어들어갓다。마-치 선불마진 도야지새끼가티。그리고 한참 네발거름을치다가 차듸찬 흙우에 배때기를 업대고 숨소리를 죽엿다。

『죽일 년놈을 어듸로 살아젓나?』

다시 일어나서 뒤를 따르는 사내의 미친듯이 헐떡어리는 숨소리가 선뜻하게 그들의 겨를 지나갓다。

이윽고 그들이, 보리대사이로 살몃이 고개를 내밀때、

『엑-기、화양집년, 너가 가면 몃발이나 갈테냐?』

하고、옥심의 남편은 한쪽다리를 절뚝거리면서、으스름한냇가를 연해 내쫏는다。역시 쓸데업는 돌을 던저、풍덩풍덩히 물을 치면서。

남편의 그 우습고도 추근추근한 꼴이보이지안흘때、옥심이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안을 따라 이러나섯다。진땀과이슬에 옷은 흠빡 저저、행주가티 날근치마자락이 아직도 떨리는듯한 그의 종아리에 징글업게 휘감겻다。

『어쩔까요……?』

옥심이는 걱정스럽게 뭇는다。

『뭐 어쩔것이 잇소。언재라도 한번은 탈로가 나고야 말것인데! 인젠 분득이 이곳을 떠나야지요。』

안은 발서 결심이 다된 대답이다。

두사람은 필대로 다핀 보리를 헤치고 다시 으슥한 냇가로 나갓다。

옥심이가 안을 뒤세우고 자긔집 울다리박게 왓슬때는 밤도 벌서 이슥한 뒤엿스나、헛발친 남편의 분하게 흥흥거리는 소리는 끄니지 안헛다。

『더러운 년 가트니、난질을해도 분수잇지! 째여 죽일 년!』

『난 처음부터 그년이 눈치를 대강 알아봣서。그년이 웬걸 일이 하고 십허서 신작로 역사갓슬게라고? 말이 쫄리니 제 길 다그러갓지!』

석어머니도 킈가 팔팔하게 등을 돌아서 야단이다。

옥심이는 실상은 옷을 가라입으라고 온것이지만, 그렇치안허도 덴가슴에 뇌려검만 더먹고는, 그만 입은 그대로 안을 따라 도망길을 나섯다。

六

옥심이가 떠난뒤、그의 시집은 서룸수업시 더 망해들어갓다。천수의 병은 될대로 다되여버리고、석어머니 역시 잔병치레만하고 누어서 세월을 보내니、아무리 석아버지——허서방 혼자서 허덕어려도 폭이 맛질안햇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옥심이가 떠난뒤 닷세도 못지나서、근십년이나 부처오든 절논(백알사논)너마지기 까지 떼어시종의게 떼엿스니 뭐 도모지 말이 안되엿다。그려고보니 논이라고는 인제、팔다남은 별뚱지기가 겨우 손바닥 만 하게 처젓을뿐。그것으로 만흔 식구가 살아 나간다는것은 철부지한 면서긔양반의 잡도리 아니면 여안될말、——제아무리 순이넘가튼 허서방이라도 속이 졸리지 안흘수 업섯다。

그러나 허서방은 이러케 두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얽매고 애면글면 영쇠판을 허덕거리면서도 겨드로는 아주 만고태평이다。

『이러다가 끄테가서 어떠킬테요——?』

마누라가 푸념을 시작하면, 그는 의례히,

『사는대로 살지。설마 산사람의 입에 거미줄 칠라구!』

『참 속도 알수 업다。남자가 돼서 어찌 저리 마음이 럳럽할꼬……?』

『헐헐안하면 어째? 뭇슨 별수가 잇나? 세상을 고치기 전에는 제-가 한때는 재법 보천교니 ××당이니 갈라먹는 세상이니 뭐니 하고 떠들드니…요새는그놈의 정감록도 아마소용이 업는 모양이지!』

허서방은 선하품만할따름이다

그리고 어쩌다가 요행히 남의 일이나 가서 팔찌에 업는 술잔이나 걸치고 오는 저녁이면, 그만 방이 비좁게 큰대짜로 빼더저누어서, 불밤송이 가튼 수염을 들먹거리며, 만고강산을 혼자가느니 어쩌느니하고 노래도 아닌것을 한참엄얼대다가는, 제도 모르게 그만코를쿨쿨한다。그러나 설혹 그러한때라도 먼동만 트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난다。마치그것이 근오십년동안을 하로도빼지안코직혀온철칙(鐵則)인듯이

動物漫談 ②

새기를 찾는 어머니고래 (一)

崔秉和 崔桂淳 畵

언덕위에서 놀고잇든 아이들 중 한아이가 별안간 무엇에 놀랏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엿습니다。

『애! 저게뭐냐? 이상스러운 것이 와다。』이말을 드른 여러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돌려 뒤를보앗습니다。

『그쪽이아니다。바다쪽이다。』

여러아이들은 다시 고개를아프로돌려서 바다를내려다 보앗습니다。그리고 일제히 눈을크게 뜨면서

『아! 저게뭐냐?』하고 바다물속에 보지못하든 식검엇코 커다란물건이 물큰 소사잇는것을 보고 이러케 부르지젓습니다。

『뭘가? 바위가아닌가?』하고 한아이가 말하니깐

『바위가 움직이든』하고 처음 아이가 좀 떨리는목소리로 말을하엿습니다。

『움직여?』하고 깜작놀난 여러아이들은 한참동안 똑바로직히고보든것을 바라다보앗습니다。

바다속의 괴상한물건——그것은 별안간 쇄-하고 움직이드니 물결이 휘거품내면서 호러젓습니다。

『물귀신이다!』하고 한아이가 떠들자

『어구머니! 물귀신이다! 물귀신이다!』하고 모다들 큰소리로 떠들면서 뛰여달어나버렷습니다。

『아버지! 물귀신이 나왓수』숨이차서 집속으로 후다닥 뛰여드러온 아이는 아버지를보자마자 대뜻고짜로 이러케 말하엿습니다。

『어듸나왓니?』어부인아버지는그물을 꼬지고잇섯는데 그손을끄리지안코 말하엿습니다。

『물귀신?—대낫에나제는 귀신이 어듸잇단말이냐? 밋친소리하지마려라。』하고 핀잔을주엇습니다。

『아녜요、정말예요。아버지는아시지도못하고 그러시네。커닷코식검언것이 바다우에 불근소삭세요。』

『듯기실타。밀물이나가니깐 바위가 나왓나 보구냥』

『제가 바위를 몰를가바그러세요。저혼자본것도아니고 본남이하고 순동이하고 선돌이하고다가리보앗는데 모다 처음보는것이므로 깜짝놀라서 도망들을하엿답니다。』

『무에그러케 무서워서 도망을 햇단말이냐? 너희들에게 덤벼들든?』

『우리쪽으로 쏘살가티 달려오는걸요。그리고 펄적! 펄적! 뛰기까지하는데요。』정말 뛰기까지는 아니햇지만 아버지가 너무 태연스럽게듯고 탄하지롤아니하므로 조곰 거즛말을 보태엿습니다。

『뭐? 쏘살가티달려오면서 뛰기까지해?』이러케말한 아버지는 그물을 꾸매든손을 멈추고 도라다보앗습니다。

우리차지

달달 복는콩
짤짤 끌는물
쩍쩍 붓는엿
죽죽 오는비
활활 타는불
땡땡 치는종
짹짹 우는새
엉엉 우는애
멍멍 짓는개
살살 기는쥐

(여럿이 모여안저 이런말을 한사람이 하나식 돌려가며 맨드려내기를 해보십시요)

(글쓴사람 최창선)

腸胃가다루良藥

ヘルプ
해 루 푸

主効 過飮·過食 食傷·水傷 寢冷·冷腹 時候不通 消化不良 等으로…

체한배 아푼배 뿔는배 땡기는배 腸가다루 胃가다루

定價 二十錢 卅錢 五十錢 一圓 三圓 六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紙上病院

부인병치료에

약을먹어서는 낫지안습니다

직접 국부에치료하는약이라야만 곳칠수잇습니다 최근 새로발명된 부인병산약『와세돈球』는 帝國大學病院·赤十字病院에서사용하야 만흔 환자를 구원한 약을 처음으로 민간에제공하는약인마큼 자택에서라도 병원치료와똑갓흔 치료가되야 곳 근치됩니다

醫學博士 木村仁

부인병리학(婦人病理學)이 발달되지안엇든 시대에는 허는수업시 부인병치료에 내복약을 써서 어느정도의치료를 하여왓섯습니다마는 오늘날처럼 의학이발달된때에는 직접환부에 치료하는 림상치료라야만 곳칠수잇다는것이 명확하게되엿습니다

즉 부인병(자궁병)의대부분은 그원인이 발굿이 국부에 병균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깨닷게되는 부인병의증세가 생기게되는것이니 병균(病菌)이 활약하고잇는 환부에(즉 자궁그것에)치료를 하는것이 가장 속히낫는다는것은 정한리치가 아니겟습니가!

그러므로 부인병의원인이 병균 또는 다른원인으로 자궁내부에 염증(炎症)과 흠집이 생겨서 그런줄을 아신이상 부인병의 근본적치료법은 직접 자궁에 살균력(殺菌力)과 수렴(收斂)소염력(消炎力)진통력(鎭痛力)으로 가지고 곳처야만 근치됩니다 다시말하자면 애기보(卵巢)나 자궁속과 점막(粘膜)에 생긴병균을 아모리 퍼붓듯이 소위부인병약이라는 내복약을 먹어도 그곳의병균이 죽지안음으로 낫지안는것이정한리치가 아니겟습니가?

그러나 직접 환부에사용하야 곳치는약일지라도 적당치못한것을 선택하시면 더욱 병세를 심하게하는것이니 우리專門醫師의立場으로 가장 리상적인 국소약으로써는

(1)잘 녹아서 찌거리가 남지안는것
(2)자궁구외에 만히 흘러나와서 끈적거리지안는것
(3)녹지안는것인때문에국부를자극치안는것
(4)살균력(消炎收斂)鎭痛防腐작용이잇는것
(5)사용법이 간편하고 절대위험업는것
(6)부작용(진물느게하든가 아픔을 더욱주든가)을 일으키지안는것
(7)권위잇는 대병원의림상치료실험을한것

——등이오니 이상과가튼 조목에합당한약에 새로발명된 부인병신약『와세돈球』라는 신약이 잇습니다

내병원에서 도이약을채용하야 입원환자와 통원환자께 사용한결과 재래의 약에 보지못하든 우수한 치료효과를 어덧스며 또한 병원에 매일 다니시지못하는 환자께 자택에서 치료케하엿든바 역시 경탄할만한 효과를어더슴으로 여기에 조선에게신 부인병전문가제씨(婦人病專門家諸氏)께 추천하오며 또한 일반환자제씨께도 권위잇는 대병원과 똑가튼치료효과를 자택에서라도 어들수잇는『와세돈球』를 사용하시사 속히부인병의고통에서 버서나시기를 바랍니다

病院治療의家庭化

帝大病院·赤十字病院에서쓰는약으로 부인병이곳낫는"와세돈球"

『와세돈球』는 직접 자궁에 넛는약이나 강력한 살균력으로 병균을 모-도죽이고 부은곳을개이게하며 압흠을다스리며 흠집이생긴곳을 아물게하여줌으로 부인병을 근본적으로 근치식혀줍니다。

『와세돈球』의효과는 사용하신지 하로이틀에 곳 알게되오니 즉 그러케 심하든『대하증』이 개이여가며 국부가 쑤시고 압우며 가려운기와 쓰린기가 모도 뚝뚝 집어내듯이 낫게됩니다 또한 아래배가 쑤시고압흐며 땡기든것도 차차 개이여가고 허리와 팔다리가 시리고 압흔것도 낫고 두통과 현기증 불면증 이 개이며 그럿케몹시 빠지든 머리같도 윤이돗고 빠지지안케되고 눈거미가 개이며 얼굴에 화색이 돗아서 일허버렷든 우승과 녀성의애교와 매력을 다시금 찻게되는데에는 더욱탄복아니할수업습니다

월경도 고로지못한분이나 아히를 못배시는분 부부화합에 자미를 모르시는분은 조곰도 주제마시고 『와세돈球』로 치료하시사 남과가튼 건강에 넘치는 행복의매실를 어더주십시요。

내복약으로는 부인병이 근치못되는것이 명확하게되이래 수만흔 부인국소약이 생겻스나 적당치 못한약을 선택하시면 병이낫키커냥 오히려 더욱심하게 만들어주나니 지금까지의 부인약을 써보신분들은 실제의경험이 게실줄밋습니다

직접 국부에치료하는약일지라도 조흔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들면 약한개를 가지고 멧칠씩 사용하게하는것이 잇스니 이것은 불결할뿐만아니라 질내의 염증과 상처를 더욱심하게하는수가만습니다

또한 다만 대하를만 빨아드리든가 또는 잘녹지안코 찍적이가 남어서 국부를 자극시키든가흑은 거문약물이 흘너내려서 속옷을 드럽히며 더구나자궁근처에 습진을 일으켜서 가렵고 따갑운때문에 여성으로서 말못할 부끄럼과 불유쾌한감을 느끼게하고 병도 잘낫지안허서 더욱 환자께 실증을 주든것이 재래의 질구(膣球)—부인병약이엿습니다

그에비하야『와세돈球』는 모양도 조코 힌색의약이며 질내에서 전부녹아버려서 약기운은 환부를 다스르는일방 전신에흡수되여서 부인병의 모든증세를 개이게하여줍니다

처녀시대나 가정생활하시는 이나 본제를 사용하실때 조금도 이상한 감이 업시 남몰래 집에서라도 병원치료와 똑가튼 완전한 치료가되오니 속히병고에서 버서나실여러분은 조선국문으로 병세를자세히쓰시고 송료의일부분 삼십전우표를 선송하시면 남어지송료를부담하야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또한 약을쓰시지안어도 최선의방법을 알니워드리며 어느가정에도 꼭한권씩필요한 조선문으로 알기쉽게쓴 醫學博士 河合綾藏先生著『女性의新生理學』을 좋지하시는대로 어느분에게도 거저드립니다

——약가—— 十二日分一圓卅錢、卄四日分二圓卅錢、卅六日分三圓四十錢(病院用)百四十四球十二圓

本劑에는 代用品이업사오며 조선에 발매한지가 메칠안되므로 大藥房이외에업는때에는직접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 日東製藥 合名會社 (振替東京二一九四二番)로 주문하시사 속히 부인병을 근치 식혀주십시사요

爽凉한 地帶

學藝

批評私論 (一)

科學的態度와 袂別하는 나의 批評體系

白鐵

近代의 批評文學體系에있서 그의 中心性格으로 規定되여온것은 大部分이 理性的이고 實證的이고 科學的이것이었다 그實例로서 우리들은 렛싱, 레―느, 산드·부브等의 近代批評家와 近年에와서는 맑스主義의 文藝批評의 全般等을 一一히 引例하야 說明할것까지도업다! 고중에서 겨우 『헤르데르』와 가리 基準批評에 反對하고 作品을 生命있는 人間精神의 模寫로서 보려고한例가 잇섯다고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히미한 것이다! 그 히미한 燐光에 比하야 恒常뚜렷한 血統을 갖고 批評의 家系를 너어온것은 언제나 그理性과 客觀의 傳統들이잇다 하나 批評은 반듯이 理性의 終局의審判이여야한다!는 主張은 現在의 나의理解에 依하면 가장 不正當한 見解의 하나이다! 한개의 素材에 對하야 그 黑白을 가리는 裁判은 오즉이 理性에만 잇는것이 아니라 感性과 心情에도 잇다는것은 明白한 事實이 아닌가!

詩는 詩에 依하야 批判된다 하나의 藝術批評이 그 生成의 必然的인 印象의 表現으로서 素材에 對하야 或은 美化된 形式과 古代의 로마人의 諷刺精神의 自由로은 音調에 依하야 그 自身이 하나의 藝術品이 아니면 藝術의 나라에 잇서서 決코 市民權을 가지지못한다!

文藝批評에 對하야 이와가튼 定義를 말한 文學家의 일홈을 여기서는 말터러 記錄치안는다 그것은 同文學者의 文學的性格에 依하야 그文學者를 判斷해온 旣定된 先入主見에 依하야가 이 論中에서 批評에 對하야 提論하려는 主旨를 誤解하는데 이르게될 폐단을미리부터 避하려고 하는때문이다!

何如튼 以上에 引用한 限에서 批評에關한 同文學者의 見解에 나는가쓴 同感을가지는바이다! 또한 이批評私論을 써가는內容에 잇서서 主로 同見解의 方向에 基線을 두려고한다

詩는 詩에 依하야 批判된다! 以上의 引用文中에서도 내가가장 사랑하고 必要하게생각하는 것은 이文句다! 그것은批評의 精神을 詩의 精神에 接近시키려는 그努力을 表現하고잇는것 그리고 그努力은最近에잇서서 내가 批評에對하야다른곳에서도 말한바와가티 될수잇는대로 創作의 精神에接近시키려는 見解와 符合되고 잇는때문이다!

近年에와서 내가 自身의 조고마한 批評體系의 獨立(!)을 爲하야 努力해온것은 그批評態度에 잇서 될수잇는대로 心情的이고 感性的이려는것 어엇다 그것은 過去에 主로 人間描寫의 素材에잇서서 批評에對하야 取해온 態度 될수잇는대로 理性的이고 科學的이고 分析的이려는 그것과는 反對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내가 그소위 辨證法的理解에 依하야 나의 貧弱한 批評을 救하려고 努力한것이 얼마나 내自身의 性格과 才能에 反逆的이엇든가를 기피 反省한 곳에서 決定한 態度이엇다! 따라서 今後에잇서서 나의 批評文學이 그의 成長되는 過程에서 가지게될 性格은 理性的이고 科學的이것 代身에 될수잇는대로 感性的이고 心情的이려는 態度過去의 그合理와 論理가 退却된 空間에는 意慾과 心魂과 感銘을 赤裸시켜 가려고한다 말하면 一個의 素材를 追求加評하는데잇서 그것을 科學的基準과 論理的命題와 數學的方程式에 依하야 判斷 實證 加算하는것이 아니고 도리혀 整理以前의 그作品世界의 混沌된 深淵한가운데 一躍으로 뛰여들어서 무엇을 直接으로 生生하게 붓잡으려는 努力을 일홈이다!

그것이 今後의 나의批評文學이 가지려는 中心性格이며 또한 그中心性格에 依하야 나의 批評이 다른一般批評과는 유달은 特殊한 獨立을 차지하려는 努力이다.

그와가티 될수잇는대로 感性的이오 心情的인것을 가지고 나의 批評文學의 性格을 決定하려는 그것이 단순히 내自身이 지금까지 取해온 過去態度에서 反逆的이며 또한 우리 文壇의 一般 다른 批評家들의 그理性的 客觀的態度와 反對되는것인 同時에 그것은 近代의 全批評文學體系로의 全體에 違反되는것인줄을 熟知하는 事實이다

女流隨筆 裏腐草 (5)

劉如玉

衣服

人間은多種多様의 衣服이잇다 野蠻人은 刺靑도옷이요 草葉이나 獸皮도 들으고산다。文明人은 綺羅毛織等의 옷을입는다。더욱이 이것으로만 滿足치안코 그以上의옷即 骨衣(地衛) 錦衣(金錢) 號衣(디그리―地位) 襟衣(學閥)等等이 잇다

저들은 제各其어느것이고하나식들러쓰고 나오면서 自己의威勢를도드며 自己의 美觀을자랑하랴고 애를쓴다。卽自身과의調和를 發見코자한다。그러나 그多數가――거의 全部가『산되놀음』이다。憫惘한일이다。언제나 저들도 流行의尖端을 걸어보랴는지!

人間아 네옷을벗으렴。소매길면 거치는데가만코 오질압이 넓으면 헐겁거서넘어질가한다。

×

植物은날이더울수록 옷을입고 치워갈수록 한겹두겹식벗는다 人間은이와反對다。樹木이 軟條에서繁蔭、濃蔭으로 次次입이둑거워갈수록 사람들은차렵、진솔홋옷――이러케얇게입는다。

植物은 입이퍼질수록 사람은 옷을 벗울수록 光線을더만히밧게된다。더우니까 벗는다는것은 粗朴한見解다。좀더生命素를 吸取하자는뜻이다。그러하건만 볏치 뜨겁다고 陽傘을떠밧는다。그늘로끄여든다。얼골이 끄을가보아서 탈가念慮하야서 流行語로는『美를保全키爲하야서』다。

彼女여!너의일홈은 逃避者다 自然拒否다。네게올것이 그무엇이냐?

戀愛診斷

鴛鴦和鳴:夫婦和樂한것을 鴛鴦에 比하고 琴瑟조키를 기러기에게 비긴다。기러기는 雌雄이 살다가 한놈이 죽으면 그 이듬해에 외기러기가 제짝이 죽은 그곳을 차저와서 피가 맺치도록 운다고한다。두루미도 그러타한다。이놈은 當初에 알로 날때부터 雌雄이 껴나와가지고 까서 자라서 죽을때까지 가티산다는데 不幸히 둘중에 한놈이 죽으면 남은 한놈은 一生을 혼자 지낸다니 人間社會처럼 薄情하고 埋沒스럽 天地는 다시 업을것이다。

더욱이 動物에서는 雌雄이나 암수니하야 암을 먼저치는데 人間社會에서만은 男女니 夫婦니하야 男을 먼저 꼽는다。갑대로 文明하얏다는 西洋서는 女子尊敬을 紳士의 큰 體面으로 삼는다。『와이프』를 虐待하는 친구、女子를 흘부리는者 이런類들은 勿論 低級이요 下層이다

이것을 보면 現代文明의 先驅는 歐米人이라기보다도 確實히 鳥類가 먼저라고하겟다。

×

甚하면 계집을치는놈이잇다。飼犬家의 말을들으면『세파트』는 決코 암놈을무는일이업단다。가다가 다른암놈에게 挑戰을밧는때라도 점잔히避하고만단다。

×

그러고 새나중생치고 內外차別이나 離婚訴訟이잇다는말을누가 들엇는가? 決코업다。夫婦有別이란 離別말字가 되여서 그런지 요새結婚은 離婚의但書가 依例붓는가싶다。

또 입때까지 나는咳嗽라면、그저『기침』으로만알엇다 기침중에도 『오르락나리락、잔기침』가튼『기침』은 제법실지아니한기침이든모양이다 그러드니 近年에와서는『당나구기침』(百日咳)이라든가 하는것이 들어와서、二三歲로 四五歲까지의 어린아기들만 專門으로 襲擊을하드니 그後로 다시『結婚解消』란 孟浪한『해소』가 생겨가지고 꼭新婚夫婦、靑年內外들으로만 도부를단기는데 이기침은 몸이차서 나는것이 아니라 넘우더워서생긴다는것이 特徵이다 暫間그診斷書를살혀보자。

姓名 모던뽀이(껄)
年齡 소양바양(철부지)
病名 結婚解消(結怨咳嗽)
病原 自由戀愛
病菌 傳染性키쓰
發熱 最初 죽자사자(四十二度半)
結婚初夜 인제야安心(三十七八度)
夫婦散步 서로도적힐(三十度)
家庭不和 드러각각(二十度)
生活困難 지긋지긋(十度)
離婚提出 그여!할년군
臥時 펄덕펄덕―헐름씨금―엇저면!―어듸보자―허덕자덕―싸느라타。

家族의徹夜看護도 所用업고깁플注射도쓸데업다。

漢詩

綠陰 押鶯

桐岡考選

佳作五之五　大阪府 朴準大

木秀陰○院落淸・
暑權無力伏三庚・
朝烟帶綠濃光滴・
千日藏紅爽氣生・
斜路橫枝行健馬・
遮門密葉囀幽鶯・
東移西轉變成態・
竹簟微凉風露輕

懊惱의詩人 하이네研究 (十一)

徐丙珏

남이不信義를하거든
너는 더信義롭하야라
그리고 네靈魂이 죽도록 슬프거든
七絃琴을잡어라
줄(絃)은울니고!英雄의노래는
불꼿과熱이 가득차서!
憤怒는물니고 그대의마음은
달게 피를흘닐것이다。

이卷頭詩가全篇의內容을 雄辯이 말한다。

全篇은 結局 懊惱의구덩이에서 불꼿과熱情을가지고 노래불는것이다。

第一部『歷史』는 傳說과史話를 테―마로하얏고 惡者가勝利한다는傳說을引用하야 그것을 辛辣히諷刺한譚詩로서 全篇을通讀하면哀痛 陰鬱 悲愴의情調가흘느고 戀愛가人生을 破滅시키는데의重要한素因이 된다는것을 表示하고 究極에는 하이네自身의運命을描寫하얏다。

第二部『悲哀』

決死兵 (Enfant Perdu)
自由戰爭의 殘壘를
三十餘年間 忠實히 직혓다
勝利의 도음도업시 싸웟고
無幸히 歸家못할도 아럿다
(中略)
部署는 뷔엿다!――傷處는 찌저젓다――
한사람이 업푸러지면 또 한사람이 뛸은다!
그러나 나는 넘어저도 또 일어난다 내武器는
부서지지 안는다――내心臟이 터질뿐이다

하이네는 人生의 敗殘兵이나 莊嚴한氣概와 悲愴한氣分을가젓다。『悲哀』의前半은 大部分이自己를欺滿한者에對한 呪咀와恨歎이다 中心은亦是後半으로서 自己運命의不幸을慨嘆하고 現世의 不合理와矛盾을暴露하얏다。

第三部『헤부라이의멜로듸―』는 『王女사밧』에후―다・벤・할레뷔―」의論爭』의 三篇의 長詩로 成立되엇다 祖先의 信仰하는 猶太敎로 復歸함을 詩로表現하엿스나 冗長의弊가잇다。

死의前後

往年의 愛人테레―제자 一八五三年六月에 하이네의 病床을 訪問하야 悲痛的再會를 하얏다 各地를 轉轉하며 蹉跎하는동안에도 그愛人 테레제―를 思慕하야 愛妻마틸드의 身上을 憂慮하야 自己의 生을 諦念하지 못하고 生을 渴望하야 作詩한 것이 『拾遺』(Nachlese)에 收集된 八十篇의詩篇이다。死期가臨迫하나마지 表現이深刻하고 하이네의心境이 소김업시描寫되어 잇다。其外에 一八五四、五年에自傳的回想 『回想錄』(Memorien)과 『告白』(Gestaendnisse)을著述하얏스나 旣述한바와가티 大部分이 함부루의 親戚에게 沒收되고 一部分밧게남지안엇다。勿論 『回想曲』이나 『告白』이 眞實한自敍傳이아니라는것을 하이네自身이告白하얏다。最初의計畫은 全生涯의大記錄을 著述하라햇스나 自身의生活記錄을忠實히쓰기 難避함을力說하얏고 外部的으로 親戚의 干涉을바더 結局完成못하얏다。

死의八個月前인 一八五五年六月에 偶然한機會에 카밀라쎌덴(Camilla Selden)이라는女性과交際를하게되어 死를慢感하고悲觀하면서도 生前에 다시한번情炎을태워보고자하든欲望을滿足하얏다。身分도 不分明한 女子이엇스나 每日 病床을 慰問하고 勞作의 助手가 되엇섯다。그러나 不自由한 肉體를가진 하이네와 카밀라와의 戀愛는 精神과 官能의 融合을 遂行못한 悲慘한 戀愛이엇다。八年間이란 長久한 時日을 病席에서 苦痛을 밧다가 드듸여 一八五六年二月十七日에 懊惱의詩人 하이네는 長逝하얏다。

十八、九兩世紀의 支離滅裂한 社會에서 時代의 苦惱를 深刻하게 體驗하고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惡戰苦鬪하야가며、그의尖銳한 社會意識은 古典派와 浪漫派에 依하야 現實에서 遊離되는 詩를現實과 結合시키엇다。그努力과苦痛은 莫大하얏슬것이다。그러나 하이네가 一生을다하야서靈의 文化와 肉의 文化의 綜合을 企圖하얏스나 結果에잇서서 完成못한것은 實行하는 意志力의 欠乏에 因함이아니엇든가 그리고 이點에 그의 悲劇이 存在하고 複雜多端한時代를 體驗한 하이네의 文化史上에 意義가잇다。(完)

新刊紹介

▲新日本民論 創刊七月號 內容 明治維新と昭和維新 行政機構改造論 軍部と廣田內閣論 隨筆 大塚齊論 南無念佛淨 其他 發行所 東京市杉並區松ノ本町一二二六 新日本民論社 定價五十錢 送料三錢

▲元山時論 創刊號 (內容)元山地方鄕土史 中等學校設立問題座談會 元山女子의氣質과健康 性 詩 小說等其他 發行所元山府廣石洞一二二 元山時論社 定價二十錢

▲民衆時報 第二十三號(旬刊) 發行所 大阪市東成區東小橋北文町三丁目七 民衆時報社 振替大阪五二六四〇番 定價一個月十五錢

▲精選論語百講 松田金重編 發行所 東京市神田區神保町三省堂 振替東京三一五五五番 定價十五錢

▲野談 七月號 (內容)弄談婚約 紅線女 僧寵의怪女 刺客은歸中美人 四色의고기 戒盃杯 안들아오는使者 其他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六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政經時論 六月號 發行所 名古屋市東區杉榮町一ノ四 政經時論社 定價二十五錢 送料五厘

▲基督敎報 第六十一號(週刊)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二五九〇番 定價一部 五錢

▲四海公論 七月擴大號(內容)世界經濟의統制化過程 社會時評 朝鮮基督敎會紛爭의眞相 東京의愛慾地獄事件 乾隆帝香艶秘錄 入選實話特輯等其他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四 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盛夏風景 (一)

安夕影

가로수 (街路樹)

그들을볼때 도회의여름밤의 긴―꿈이그곳에 잇슬줄보다
거지아이들에게 만약 이그늘이업스면 그메마른 창자가타서
세상을노리고 운명한 그들의
그무서운 눈들을 저―길바다에서 날마다 며치나보앗스랴
◇
동그란 파라솔―미테·붉은입술들이 여름의 또약볏출 보고 웃는다
그들의 마음에는젊은때의섬하(盛夏)의 꿈이 그득이 서리웟슬러이지
그들은 이 도회지를 물업는 바다라고 하길래
저 노픈 콩크리트의 무서운 빌딩미를차저서 거르며 그 시원스런 눈들로 그빌딩들을 어루만지고 지나가는것이지
그러타
저들은 저 빌딩들을 사랑한다
어제에 솜버선을신고 이마의 솜털을 쪽지개로 뽑고 옷고름에 노리개들을 차고 골방에서 나와 어룬들께 절하고 제 사나히를 보고 도라서든 그 이따의 젊은 시악시들이 지금은 길을 거르며 파라솔미테서도 저―빌딩속에서 붓채질을하며 아니 전과풍선 아페서 딸꿀것고 펜을 쥐고일을하는 제사나히의 점심먹는 양을 그려보고 맘에미소를 창조하는것이다
바다의 물더미(波濤)가튼 저 빌딩은
마음여린 그시악시들의 밋고 바라는 그사나히가 이더운여름에 땀도 맘대로 씻술수업는것은 모를터이지
맘여튼 이녀인들아
◇
가난한 사람에게는 겨울보담 여름이낫다하지만
그러타면
베헌겁도 못어더 살이드러난때무든 옷을걸치고가는저사람들을보라
생철집웅미테서는 꿈도업다
흙벽 안에서는 우숨도업다
거적데기우헤 사는사람들에게 삶이잇겟는가
여름은 그들에게 잇서서는초열지옥이다 가난이쫓로되는 미운 철긔다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이즐거운 여름에서 그들을 빼여노코 생각하면 그들은 이따에서 삶사람들이라

貧困과苦難의作家

고리키―의生涯와藝術

그의突然한訃報를接하고

(6) 咸大勳

그러나 그이듬해 一九〇一年 그는健康을害하야 醫師의 勸告로 家族과가티 南方『야르타』로 가게되엿다 거긔는『톨스토―이』와『체홉』등文豪가 잇섯다 여기서 그들은 자조 만나 文學上討議도 하게되고 療養도 하엿다

一年間거긔서 지내고 그는다시 一九〇二年 故鄕으로도라와 『페테르부―르그』로 或은모스크바로 다니며 恒常 끄님업는 勞作을 앗기지안엇다。그리하여 一八九八年에 出版된 그의 單行本은 나는듯 팔리엇다 讀書階級으로써 『고―리키』를읽지 안는사람은 업섯다。이와가티 『고―리키』의 名聲은 中外에 또한 反響이되여 一九〇一年에는 파리에서『유―고―』百年祭가 잇게 되엇는데 佛蘭西에서는『고―리키―』를로시아代表로 招請하게되엿다 그리되자 로시아帝國學士院에서도沈黙을 직힐수가업서 一九〇二年에는『고―리키―』를 名譽會員으로 推薦하엿다 그러나 이것이 問題가 되여 다시學士院은 그를 公報로써 推薦取消를하엿다 그러치만 그것이 取消되엿다고 그의名聲이떠러지지는 안엇다 社會는 더욱 그作品을 歡讚하게되고 各種講演會나 文藝會에서는『고―리키―』를 歡迎하고 그의作物을 朗讀하는等 더人氣를 끌엇다 花束과 無數한 電報는 그에게 每日山으로되어드러오고 貴婦人의 集會에서나 農夫들의 變會場에서나 다른勞働者의團體에서도 이야기의꼿은『고―리키―』로되게되엿다그리하야『니쥐니노브고로드』로부터南方『야르타』로 다시轉地療養의 길을떠날때는送別會場은 各階級各階級의 代表者로滿員이되고群衆은 行列을지어그를送別하엿다 各驛마다 送迎하는 花束이 적지안어 거짓『고―리키―』로 偶名하고 다니는喜劇 까지演出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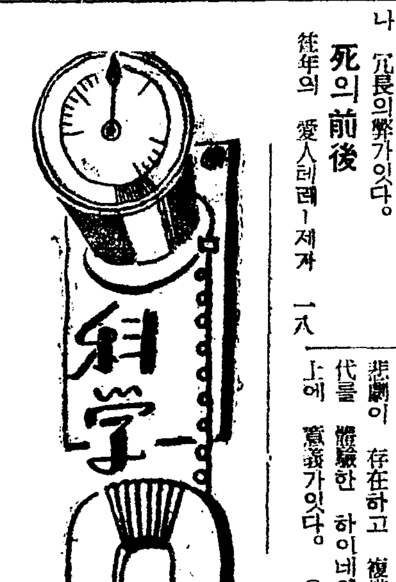
떠구나 一九〇二年 모스코바藝術座에 그의戲曲(小市民)이 上演되엇든 그것이 아조 非常한 好成績이엿기때문에그 戲曲은 한번에 五萬部를發行하게까지 되엿다 그런데 그다음의 戲曲『롬펜窟』은 모스크바藝術座에서 上演하엿는데 이또한 적지안흔 好評이엿서 帝室劇場과 地方劇場에서는當局에서 上演禁止를 하게까지되엿다 이리하야一九〇三年에 發行된 그의著作集은 數個月동안에五版을 거듭하고 單獨으로出版한『롬펜窟』은 一九〇三年 一年間에 十四版을 거듭하엿다

이런가운데 一九〇五年이엿다 이해는 로시아의 第一次革命이일든해로이革命은 고―리키에게特殊한活動을 展開케햇다 그것은 그의 『一月九日』이가지니 戰慄할名篇으로써로帝와 그의奉仕者가 行한諸行動의××性을 永久히 傳達식힌것이엇다 고―리키―는 檢束이되여 死刑宣告의 所聞까지들리엇다 떠구나 이所聞이 外國에 들리자 各國에서는고―리키―擁護의 大大的 示威運動이 始作되엇다 그리하여 고―리키―는 로시아의 現存制度를××하려는 意圖에서쓴 그의檄文때문에 檢束이 되엿건만 그는 어떤保護下에 放免이되고 政府는 即時 이事件을 抹殺하고 말엇다 그러나 그는 뭇내 革命援助의團體를 選拔하고 示威的인 集會에 出現하야 크게劃策한는가잇섯다 그리하여 그를따르는檢擧의손은 끈일날이 업시 로시아에서 떠나 아메리카로갓다 거기서 그는××運動資金을 求하고 目的으로 集會를열고 大雄辯을 吐하엿다 그러나 그를 逆宣傳하는 徒黨때문에 그는結局 아메리카를 떠나지안을수가 업섯다。그는 本國에 正妻를두고 女俳優를 同伴하여 왓다는것이엿다 그러나 그裏面을 알어보면 그를中傷하려는 로시아保守黨의 손이 뻐처든것이엿다 그리하여 그는 亞米利加를떠나 南歐의孤島인 나포리附近의 카프리島에서 痼疾인肺病을 靜養하면서 루나차―르스키等과가티××社會黨을 이르키어 一大社會運動에 獻身하게되엿다

偶然과必然

그理論的出發과歸結

(五) 鄭槿陽



그러나 모든것을偶然이라고볼때 未知에對한 探究心의消失을 보기쉬울것이다。世上萬事가 모도다偶然으로써 成立되고 成起하다면 우리들은 무엇을目標삼아 前進할것인가。모도가 偶然이라면 우리들은 努力을中止하고 다만 偶然히 幸福이 차저오기를 기다릴따름이겟다。모든人生의努力과 奮鬪를 中止할수밧게업슬것이다。努力으로써 거가相當하는報酬를 어들것이 업겟기때문이다。이리하야 偶然論은 思考力을 否定하게되며 人生을 不可解의것이라고하야 自己欺瞞的態度를 取하게될 危險性을 多分히 內包하고잇슬것이다。더나아가 神秘主義에 빠저버리게될것이요 감상感傷主義로 서로 內通할것이다。個實한 主義와主張과 未來에의 엇더한目標를 가질수업슬것이다。主義와 主張을 가지지못한 人生처럼 無意味한것은 업슬것이다。努力하면 반듯이 무엇이 오리라는 確實한 根據업시 우리들은 단하로라도 生을 維持할수가업슬것이다。目標가업슬때 엇지 路程을定할수 잇겟는가。그들이 말하는바와가티 우리周圍에는 許多한 偶然이存在한다。그러나 그것들을 內通한 嚴然한法則性이 內在한다는것을 決코否定할수업다。科學의 法則的認識에 依하야 偶然은 나날이征服當하고잇지안혼가 未知의 數的는偶然에 엇더한法則性을發見하라고 애쓰는곳에 우리들의思考力의 發動을 볼수잇슬것이다。

偶然에놀라며 不可思議에 눈뜨는것은조타。이런態度가 업스면 何等의 進步를볼수업겟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것은 偶然을偶然으로서 내버려두고 傍觀하는 態度이여서는 아니될것이요 그것들이 變合하야 必然性을構成한다는것 그背後에는必然性이 貫徹되여잇다는것을 알아하겟다。이것은 한階段노픈必然性에 統一되偶然이기 때문이다。

現實世界에잇서서 法則이例外를가진것 가티보이는것은 個個現象이 各自의 環境條件과 서로作用하는까닭이요 이런모든條件의 根據가 究明되는날이면 法則의 確實性이 더욱더욱確實해질것이다。

文學作品에잇서서 偶然을 노파評價한다는것은조타。여기서 取扱되는偶然도 必然에 內包된偶然일것은 勿論이다。또다시 文學에잇서서 偶然을 承認한다는것과 世界觀으로서 偶然을認定한다는것 과는다를것이다。아니 달러야하겟다。物理學的見解가 機械的 因果律代身에 確率槪念을 代置하엿다는것을 認定한다치드래도 우리들은 世界觀으로서는 必然思想을 固持하여야하겟다。

모든것을 無原因的인 것이라고 幻想할때 우리들은 一切의 知的活動을 中止할수박게 업게기때문이다。

×

그들이 말하는 必然이라는것은 固定的이다。必然은 固定的인 槪念이여서는 아니된다。流動的이며 發展的인 것이다。必然에 流動性을볼때、그들의 말하는 偶然이라는것은 이러한 流動的인 必然槪念中에 싸여버리고 말것이다。그리고必然과 偶然을 全然 分離식히고 서로 對立식혀고잇다。必然性과 偶然性을 서로 絶對로 排斥하는規定으로써 取扱하고잇다。單한개의 獨立한偶然 或은 必然이라는것은 存在하지 안는다。偶然은 必然을품고 必然은 偶然을 품고잇다。無數한 偶然을 通하야 엇더한必然性이 나타나는것이다。

이리하야 必然과偶然과는 서로 辨證法的關係에 서잇는것을알수잇겟다。

一見偶然으로보이는것이 高次의 法則性에 轉化하는것이다。

이리하야 우리들은 偶然과必然을 機械的으로對立식혀서는아니될것 또다시 因果律도 現代物理學的理論으로부터 破壞될것이 아니요 世界觀으로서 必然思想을 支持할것을 알수잇겟다。

――(了)――

娛樂

太西洋을건너온 죽엄에노래 禁止案提出?

센치멘탈한 멜로듸아래 항가리의한作家 렛소·세레스가 作曲한『슬픔의日曜日』은 一然全歐洲를 風靡하게 되얏다。그뿐이 아니라 이르는 곳마다 멜랑코릭한 氣分을 자아 내어서 술타령을 하는 사람乃至 自殺을 하는 사람들을 續出시키기에이르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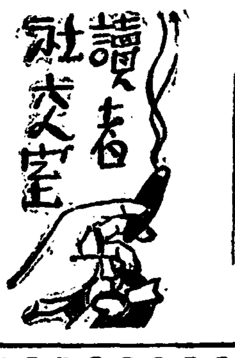
그런데 利人속에 눈이 밝은 아메리카의 레코드會社에서라고 이 消息을 못 들엇슬수는 업다。그래서 검은 喪章을 부친 죽엄의 멜로듸는 太西洋을 건너서 新大陸으로侵入하얏다。아니나 다를까 여긔서도 센세숀을 이리키엇다 巴里暗黑街에잇서 有名한 歌手다미아의 목소리를 타고서 그멜로듸는 全大陸을 휩쓸어버리엇다。

어두운 어두운 日曜日、
두손으로 꼬졸 부둥켜 안고
넷사랑의 보금자리를 차저섯노라。
피곤한 몸과 마음 천만근인듯
너는 영영 돌아가 돌아오지안는다。
넨들어와 모를리—잇나?
나홀로 사랑과 탄식의 말을 짓거리고 잇는줄。나는 홀로 이 눈물 짓노라、
박게는 차듸 찬 비바람뿐。
아! 어두운、어둔 日曜日

여기서는 이 노래로 自殺者가 續出해서 下院에다가 이 노래 禁止의 動議를 提出할려는이까지 생기게되얏다。그는 네브라스카出身의 下院議員 칼、스테판氏로서 지금 그 提出準備로 奔忙中이라고 한다。

『나는 아즉 그노래를 들어본일은 업는데 한번 들어보고 십다。果然 傳하는바와가티 憂鬱한 氣分이 일어 난다면 그禁止案을 議會에 提出할수박게는 업다。노래가사람의 마음을 움죽이는 힘이란 굉장한것이다。그런 流行歌를 禁止하도록 議會에서主張하는것이야말로 議員의神聖한 義務라고 밋는다』云云

綠色의牧場 로코·빡드포드의 小說을 名라이터 마크·코네리이가 脚色한것이며 創世紀以前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를 背景으로 展開시키는 와나의 大作이다 監督에는 코네리의自身이 나서고 監督補에 윌리암、카이리 카메라에할·모아라는 스타프다。出演者는 全部 아메리카의 늬그로인데 浪漫派의 巨匠으로『默示錄의 四騎士』『마음업는女性』等을 製作한 往時의 名監督 렉스·잉그람이 主演하얏다。이 寫眞은 黑人으로 扮裝한 잉그람이다。



▲어느분이고 바이오린 中古品으로 讓渡하실분은 업스십니까? 그리고 바이오린專門大家에게 個人敎授에게 배우느니보다 그저 나로서는 普通사람에게 交際를 兼하여 좀배우고시푸니 누구시든지 通知하여주시면 感銘不己이겟나이다 嶺雲町二七讀者

▲小生이 左記의書籍을 廉價로 讓渡하겟사오니 希望者는本欄에 通知하시요 世界文學全集『復活』及『罪と罰』 人生の暗黑面

▲明年에東京가실분으로 音樂學校나 技藝學校에入學하실분은 저에게알니워주시면조켓습니다 나도역시明年東京에가서 勤學할二十歲靑年입니다 勤實한同志를願합니다 市內嶺雲町二七 젊은讀者

▲六月十日發表하여주신 貴下의親切한뜻은 참으로感謝합니다 貴下의게書信으로 問議하라고하엿지마는 貴下의住所氏名이업서서 不得已社交室을通하여 또問議하오니 잘가르처주심과同時에 貴住所氏名을 記入하시기바랍니다 아직醫師規則及試驗制度가업는만큼 有資格醫師(醫大、醫專醫試及第者等)들이 開業하고잇는 地方이라도 朝鮮內醫生이開業할수잇습니까? 特히醫療機關이업서서 困難한僻陬地、卽有資格醫師開業無한곳에限하여 朝鮮內와가티 許認하게되는지요? 그리고 醫生이라朝鮮에限한 特殊名稱인만큼 規程制度가업는 滿洲國에서는 漢方醫術로든지 洋方을아는醫生은 不得已洋方醫師로 稱用할수박게업는것 아닐가요? 慶尙 B生

▲欲知生께答합니다 大正四年陰十二月十一日戌時는陽曆으로大正五年一月十五日土曜午後七時부터九時間이요 太歲乙卯月建己丑 日辰辛亥 時辰戊戌이온대 大正五年朝鮮民曆에서考出하엿습니다 藏曆室主人

▲吉(銀)(振)君그대를去年八月에上京時에相逢하고아즉것消息을몰나 궁궁하오니그間就職이나 하엿는가? 數次君의妹兄宅黃金町三丁目一〇九로 片紙하엿스나答書가업스니 社交室을通하여住所나알기를바라네 黃金町近處讀者諸賢이시여 右吉銀振君의住所를아시거든 이社交室을通하여알녀주시면 大端感謝하겟습니다 江原道金化邑內 裴永洙

▲求婚 二十一歲의未婚男子인데求婚하고저합니다 年齡은十六歲以上二十歲以下로 學力普校五年以上修業者(同等學力者)身體健康한女性을 眞心으로求하오니有意하신분은 本社交室로住所를알려주시면直接相議하겟습니다 滿洲 一讀者

▲六月七日滿洲一讀者氏에 問議하신肺結核療養院은 海州와咸興에 잇사오며 海州는一等六〇圓二等四五圓 三等三〇圓이며食事는 自擔이외다 食事는食母를두는데 月四圓이면되며 食料品代는 二十圓內外듭니다 咸興도海州와同程度일것이며 食事는自己經濟에따라들것입니다 貴下께서TB로 苦生하시는 模樣이니同情을마지안사오며 小生은 該病에쓰린經驗을가진 全快者로누구시나TB에對하야 무르시면經驗에비초아 말슴해드리겟습니다 京義線汴浦驛前 金廷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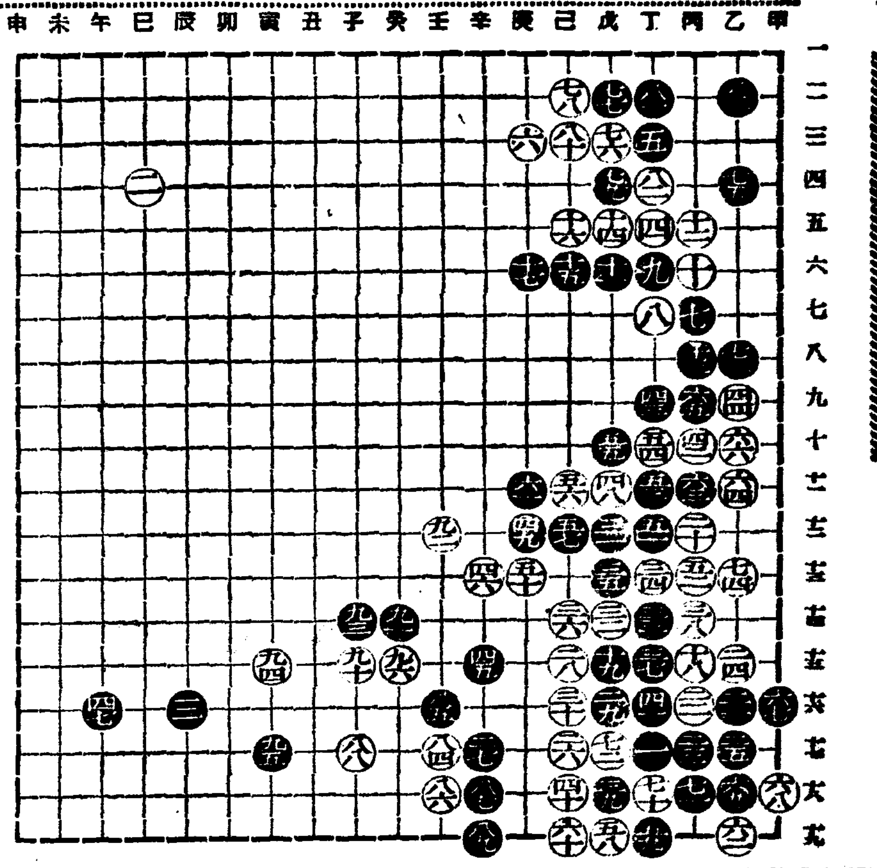
▲배곱흔生에게 貴下의處地를眞心으로同情합니다 放賣하고자하시는 書籍中에서 社會科學及思想에關한書籍의 冊名、著者、發行所及、其年月日、定價及放賣할價格等을一次通知하시면多少間買入할意思가有합니다 忠南公州郡維鳩里 李建杆付

▲生은現在市內某醫專在學中인데 左記條件으로求宿하오니 本社交室을通하여 宿所를알여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一、西大門町近方 二、淸潔하고조용한집 三、學生이만히잇지안코獨房 四、六月六日以內에投宿될집 (S求宿生)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6=

白 丁奎春
黑先 柳鎭河

●	八一	丁의二
○	八二	丁의四
●	八三	乙의二
○	八四	壬의十七
●	八五	壬의十六
○	八六	壬의十八
●	八七	辛의十八
○	八八	子의十七
●	八九	辛의十九
○	九〇	子의十五
●	九一	癸의十四
○	九二	壬의十二
●	九三	子의十四
○	九四	寅의十五
●	九五	寅의十七
○	九六	癸의十五



禁極文氏評日 黑이 東角修補에 遲延됨으로 白이 先啣를 어더 壬의十七로 挾着하니 黑牽制를 注意하고 黑은 辛의十九로 抽立하야 白左右包圍策을 暗示하니 進就如何는 時間問題이나 實勢我肥上觀望이로다

二十七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 一、齊唱 초人물잇 二、獨唱 앙굼스런고양이 三、齊唱달마중 四、獨唱 비오는저녁 五、齊唱 아침 六、조각베 七、獨唱 새야새야 八、齊唱오리떼 忠信學院兒童 伴奏金龍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同八時 職業婦人에게希望을뭇는座談會 金章煥 京城府立產院 鄭貞媛 東大門金融組合 金基鳳 京城郵便局電話交換課 崔金順 仁川郵便局電話交換課 金立分 外三人
◇同八時四〇分 獨唱 一、歌劇 마르타中에서『내너를본後에』플로트作曲 二、아돌나의로만스 웨-버作曲 三、海邊의노래 슈-벨트作曲 四、넘은나의安息 슈-벨트作曲 權泰浩 伴奏 金元福
◇同九時五分 新談 『올공금八字』 申鼎言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唱劇調 曺鶴鎬 鼓手 丁元燮
◇同自一〇時 至一二時 레코-드演奏(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連續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BK고도모서클 藤井甚太郞
◇同七時三〇分(大) 獨唱 合唱管絃樂 城多又兵衛外
◇同八時三〇分(東) 連續라듸오小說 市川段四郞
◇同九時(大) 時事解說 池崎孝忠

二十八日 (日曜)

◇午後零時五〇分 花草四巨里外 一、花草四巨里 二、六字백이 三、興打令 四、개고리打令 高桂仙 高飛鳶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三〇分 童話劇『참새學校』一景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配役— 참새生徒一……金玉姬 참새生徒二……羅今子 참새生徒三……禹興才 참새先生……劉㶍香 새집는아이……柳河景 指揮 南雲 伴奏 劉永愛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吳基先
◇同八時 라듸오·드라마 〃山사람들〃一場 李泰俊作 —配役— 龍喆의父……印在峴 同 母……金福鎭 龍 喆……孟暎植 龍 順……吳愛槃 快石의父……李 雄 同 母……諸顔海 鳳 乙……李光來 村老人……全一劍 記者甲……宋在魯 同 乙……朴商益 演出 李龍元 效果 效果班 劇藝術研究會
◇同八時四五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寧邊歌 四、경아리 五、라령 六、도라지타령 金春紅
◇同九時十分 차레르獨奏 一、修道院의鐘……카장베作曲 二、歌劇박쥐波奏曲……슈트라우스作曲 三、벌의소래……링케作曲 四、獨奏靈歌 스칼스키
◇同十時 朝鮮交換放送 —京城으로부터— 短簫及洞簫獨奏 一、短簫獨奏散調 二、洞簫獨奏 새타령 柳東初 杖鼓 諸千洪
◇同十一時 레코-드音樂 (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 管絃樂과器樂獨奏 DK管絃樂團
◇午後零時五〇分(東) 滿洲로부터 歌曲 奉天新滿歌曲團
◇同一時二〇分(東) 明治—昭和 映畫大會 染井三郞外
◇同二時一五分(東) 라듸오風景
◇同六時(東) 少年音樂講座 井上武士
◇同七時三〇分(東) 歌劇마담빠더풀라이 永田絃二郞外
◇同八時三〇分(大) 日曜特輯 뉴-스演藝
◇同九時(東) 連續라듸오小說 市川段四郞

二十九日 (月曜)

◇午後零時五分 映畫이야기 最後의戰鬪機 成東鎬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일과責任』每日申報編輯部長 柳光烈
◇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 修學旅行『門司』(二) 堺材高醫 辛鳳祚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八時 講演 루-소-와近代思想 曺希淳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竹杖芒鞋 (나)唱劇調 박타령 丁南希 鼓手 池龍九
◇同九時 歌曲 一、界面 二、數大葉 三、界面頭擧 三、弄 四、界樂 五、羽界樂 盧鏞桃 金蘭珠 伴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三〇分 노들江邊外 一、노들江邊 二、도라지타령 三、밀양아리랑 四、靑春歌 五、방아타령 六、양산도 細笛 玄山玉 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一一時 레코-드音樂 (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英語講座 山田巖
◇午後零時五分 萬才 아듸스아베바 알음베비
◇同二時(東) 婦人講座 山岸光宣
◇同六時 이야기 山田俊盛
◇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仙) 講演 長谷部言人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東) 長唄 松島庄三郞外
◇同八時五〇分(東) 라듸오드라마 花柳章太郞外

ウテナ 雪印 バニシングクリーム (우데나 크림)

新鮮한 丹粧美는 淸凉한 여름의魅力!

純白한 빗!

純白한無脂肪性은 오직바니싱에서만 볼수잇는빗입니다

말숙하게속살에녹아 들어살바탕에榮養을주어어여뿌고 조흔살결을 創造합니다

땀과脂肪에 밀니지안는

脂肪을吸收!

땀、脂肪을吸收함으로써 츄하게번적이는일업고놀낼만큼오래갑니다、산뜻하게잘먹고液은化粧水와가튼作用을하야、살결을整劑하야 젊음이넘치게합니다

젊디젊은!

그우한香薰은푸른닙에스치는微風보다도 산뜻한感觸입니다

땀、脂肪을解消함으로써 皮膚에끈적이는梅雨期 무더운盛夏에꼭 必要한크림입니다

お化粧下に オヒゲ剃り後に 日焼け止めに

肌色、濃肌色、오-클은여름人빗입니다 潑剌한여름人風景에얼맛는빗은、感覺的小麥色의化粧에는꼭必要합니다

肌色 濃肌色 健康色 부룬 나쥬렐 白色 오-클一號 오-클二號

ウテナ水白粉

東京 久保政吉商店

11.6—7.2

東海漁業의王座 鰮魚依然不況

昨年同期에比해一割에不過로 道當局에서對策講究

【咸興】 함남수산의 왕좌를차지하고잇는 온어(鰮魚)는 루보한바와가리 의연 불황(不況)으로 수만명어민들의 공황을 자아내고잇다 이십오일 까지의 어획고는이만륙천이백칠십통(桶)으로서 작년동일의 십이만이천칠십오준에 비하면 구만오천삼백칠십오준의 격감이다 현재조흡식장이고잇는곳은 삼호(三湖)차호(遮湖)전진(前津)등 연안으로 그것도 해안에서 일백해리 나먼곳에잇스므로 매우 잡기어렵다 온도(溫度)는 십사도내지 십구도로서 온어에는 적온(適溫)이나 온어군은 의연몰려오지안는다 이의원인에 대하야서는 조류(潮流)관계나 근일너무도 비가오지안는것도 한원인이되지안흘가 추측되며 도당국에서는 시험선을 각지에 파견하야 조사중이다 금년은 전년의 대풍회에비추어 전년보담은 배나어업자가 격증하얏스며 제조공장들의 투자액도 몃배나더하고잇는데 이가리 해조(海潮)의 어변에 국도의 공황을일으키고잇다한다

漁場을中心으로 兩地漁民間紛爭

當局의調停으로解決?

【海南】 해남군 북평면(海南郡北平面) 내동, 방산(內東,方山) 량리와 완도군 군외면 고마도(莞島郡郡外面古馬島)는 서도 건너다보이는 곳으로서 그사이 퇴도(兎島)라는 어장지를 중심으로 서로 내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래전부터 분쟁이 계속되여오든바 금년에 이르러서는 그도가 지내여 일시는 공긔가 험악하야 전남도 수산과장이 지난십팔일에 현장에 출장하는 일방 양군 군수 서장 어업조합리사등 참집하야 조정에 진력하여다는바 이십칠일에는 양군의 어민대표가 합석하야 원만해결키로하고 동일은 각서까지교환키로 하엿다는대 분쟁의요점을들면 완도에서는 그군의해안임을 주장하고 해남에서는게웅(天然江)을 중심삼아 어장지한계를 말하여 오든것이라는대 이어장지에잇서는 양면주민의생활상 언으편이고업서서는 안될형편임으로 금후로는 어장지사용과 해초채취에 잇서는 감찰표를 주기로 하엿다한다

一等	特大牛	桂炳龍
二等	大牛	李熙善
三等	中牛	金東洙
四等	小牛	金福淳

地方發展討議次 原州繁榮會臨總

【原州】 원주는 종래제반시설노보나 발전상으로나 수면상태를면치못하던바금번중앙선(中央線)의철도부설과 다년현안중이던 제사(製絲)공장의설치급경동(京東)철도의연장등이 확장되얏슴을따라 읍내에서는 일층더단결하야 지방번영책에 주력하고자 지난십팔일 오전구시에 번영회관시총회를 공회당에서 개최하고백여명회원의 출석으로 경과보고회록개정 역원보결협의 사항등이잇섯는바 신임된역원은 아래와갓다고한다

幹事 陰綱塤 安俊興 張基鎬
評議員 金周燮 深田通 植村忠濟

宣川支局後援 全朝鮮씨름大會 大盛況裡終幕

【宣川】 선천체육회주최 본보지국후원의 전조선 씨름대회는예정대로 지난음오월오, 륙, 칠삼일간 선천읍내 월전동 공설운동장에서 개회되엿는대 각곳에 모혀든 일류력사는 각기자기 지방의 무거운 영예를 질머지고 힘을다하며 최후까지 싸워 대회는 원만이 수천관중의 환호리에 막을닷치엿는바 입상자는 다음과갓다한다。

彰德學校建築費로 又復二千圓喜捨

平壤金永國女史美擧

【平壤】 평양부내신창리(新倉里)이백삼번지 김영국(金永國)녀사는 금년륙십구세의 고령으로 교육사업에 공헌이 적지안흔터인테 작년팔월에는 대동군룡산면하리(大同郡龍山面下里)에 소재한 사립창덕보통학교(彰德普校)에 긔본재산으로 동군서천면내리(西川面內里)에 잇는 논(畓)삼천오십팔평을 긔부하엿고 이번에는 동교교사가 협착하여 곤난한것을 민망히녀여 이십이일학교증축비 이천삼백원을 또다시지사하여 동교직원、생도들을 깁부게햇다 동교에서는 김녀사의 후은의 일부라도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긔렴비(紀念碑)를 건립하기로되엿다 창덕학교의 현세는 륙학년사학급으로 남녀 이백팔십구명의 생도가 재적해잇서 교장리봉철(李鳳喆)씨외 교원삼명의 에게 꾸준한 교수를밧고잇스며 십구회에 이백구십팔명의 졸업생을 사회에보내엇다

旱騷는去益深刻 天水畓아주悲觀

移秧한苗도몟날만지나면狼狽 順川地方人心不安

【舍人】 살인적한발은 의연히 계속하야 일반농사에 비보만 전하고잇다 평남 순천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비오기만 기다리면서잇는 천수답들은 모가 이제는 너무 시기가 넘어 엇지할수가업고 이제 압호로 비가온대야 옴겨서 소용이업게되는것이 만흐므로 폐농할지경에빠진 사람도 적지안흔모양인데 이제 전곡을 심으는대자 아무런 소용이 업게되엿다 엇잿든 이가리 게속한다면 이미 이식하여노흔것이라할지라도 역시 락관할수업서 농가의 한숨은 더욱 커가는중이다。

永興地方苗板龜裂 移秧은不過四割

【永興】 함남영흥 지방은 살인적한발이 계속되여 일반농가의 인심이 극히흉흉하다함은 본지루보한바이어니와 요맷칠전에 일반의 갈망하던 감우도 천지를 휩쓸고잇던 뒷글이나 재운형편으로 영흥지방의 수전은 거개 말라버린 상태인데 영흥전체를 통하야 이앙은 사할에 불과한형편으로 일반농가에서는 비를기다리는 아우성소리가 자못놉다고한다

洪城地方에도 移秧三割程度

【洪城】 홍성지방에는 한발계속으로 현재이앙면적은 약삼할에 불과하다는데 농작물은 고사상태에 잇슴으로 농촌인심은 극히 불안하다고한다

井邑

全朝鮮弓術白日場大會

▲時日 自七月一日至同五日
▲場所 宗聖里蘭菊亭
◇主催 小內、保勝、會
◇後援 朝鮮日報社井邑支局

마라손選手飮毒

【揚市】 평북룡천군양시북동(平北龍川郡揚市北洞)에사는 문치건(文致健)(二七)假名―은 수년전까지 마라손선수로 혁혁한 명예를 떨처오든청년으로 지난이십사일밤 룡면다량의 몰핀을마시고 빗나는청춘의생명을 아모런애석도업시 내처버렷다는바 아직도 그의죽은원인은 알수업스나 일반의추측은 인생에대한 회의가 그원인이아닌가십다고한다

海水浴場開場

【馬山】 마산부(馬山府)의 이대사업중 하나인 마산해수욕장은 종전대로월포지(月浦地)에서 개장키로되여 방금마산부에서 그준비에 분망중인데 정식개장은 래월십일경이나 이달이십오일경에 그설비는 완성되리라고한다

發展海州를例證 地價七倍로奔騰

借地借家料도二三倍

【海州】 서조선의 웅도로서 비약적발전도정에잇는 해주(海州)의토지열은 최근에이르러 절정에달하야가지가지의 부산물을비저내고잇거니와 지금으로부터칠년전인 소화칠년도로부터 현재에이르기까지 칠개년동안의 토지가격의등귀상을보면 실로놀날만한수자를뵈이고잇다 즉소화칠년도에 상정(上町)광석정(廣石町)은평당 일원내외하든것이 현재에는 평당십원내외로폭등되엿스며 동영정(東榮町)서영정(西榮町)은 평당 이원내외하든것이 십원내외로 남행정(南幸町)북행정(北幸町)은 평당삼원내외하든것이 십이원내외로 중정(中町)은 평당십원내외하든것이 이십원으로 북본정(北本町)과 남본정(南本町)은 평당오십원내외하든것이 이백여원으로폭등되는등대체로 칠년전에비하야 약칠배의 앙등을 뵈이고잇는데 이에따라 차지료(借地料)와차가료(借家料)도 평균삼배의 앙등을뵈이고잇다한다

南朝鮮籠球大會

籠球俱樂部主催

【統營】 통영롱구구락부(籠球俱樂部)에서는 오는달 이십팔일을긔하야 남조선롱구대회(南朝鮮籠球大會)를 본보통영지국후원으로 개최한다 는데 각지에서 만흔 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하며 대회규정은 다음과갓다

時日 七月二十八日午前九時
場所 統營籠球俱樂部코―트
申込期日 七月二十七日까지
申込場所 博愛堂
申込金 每팀二圓式

江西支局後援 西朝鮮蹴球戰 大盛況裡終幕

【江西】 지난이십이일부터 사천체육회주최와 본보후원하에 개최된 제이회서조선축구대회(西朝鮮蹴球大會)는 공전의 대성황을 일우엇는데 참가팀은 청년팀이 십이팀이엿고 소년팀이 구팀으로 우승에 청년팀은 인성팀(仁成)이엇고 소년우승은 양덕팀(養德)이엇다한다

地方人事

▲輸大華氏(産業技手)安東郡農會轉任人事次本報豊山支局來訪

運轉者의過失로 荷車運轉手慘死

【永興】 지난이십오일 오후팔시삼십분경에 영흥읍내룡남리 대로상에서 운전수가 화물자동차에치워 즉사한 사실이잇다 그피해자는 영흥군 진흥시내사백오십번지김기홍(金寶興)(三四)이요 가해자는 영흥읍내 용남리 일백번지 로재영(盧在永)(三一)인데 전기 피해자김씨는 현재진흥자동차에 운전수로 잇서그날에도 영흥읍내 토목조합(土木組合)으로오는 소금화진짐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하여소창고에는 자리가업다하야 도정리 곡물창고에다 너어달나함으로 운전수 김씨는 자동차 카부를 돌이려할지음 지긔의 친우인 가해자를 맛나게되여 운전수 면허도 업는 로씨 에게 운전을 매겨노코 자기는 자동차뒤로 두미들거리에 떠러저운전을 지시할때 운전에기술이부족함에엇지 술이취한로씨는 잘못운전하야 김씨에게 부다처서즉사케하자 가해자는 경찰서에 달여가 자백하엿다하며 피해자시체는 남산리 주성칠(朱性七)씨집에다 맛겨두고 방금 경찰서에서는 엄중히취조중이라한다

禁酒斷煙宣傳

【寧邊】 평북녕변(寧邊)읍에서는 지난 이십삼일 당지 예수교면려청년회주최로 어린 유년주일학교학생을 선두로 남녀교우천여명이 금주단연긔를 놉히들고 『술을마시지마오』선전가를 부르며 이천여매 선전비라를 뿌려 금주 단연 선전을 하엿다한다

悲運에서曙光에 德川幼稚園更生

―社會有志의引繼로―

【德川】 평남덕천군을 통하야 단하나 밧게업는 우리들의 유영과관인 사립덕천유치원은 거금십륙개성상을두고 파란곡절을 거듭하야 난항사(難航史)를 가지고잇든바 금춘에와서는 더욱 경영자이엿든 덕천유림회(德川儒林會)의 방기(放棄)로 일시는 폐쇄의 비운에까지 빠지게되엿든바 일반사회유지들이 분긔하여 새로지제를수립한후 인계경영케되여 이아프로는 가정과 긴밀한련락을 취키위하야 자모회(慈母會)도조직하리라한다 무엇보다도특이할사실은 협착하고 비위생적인 퇴락원사(一舍)신축론이 신임리사 제씨로부터 대두케되다하니 멀ㅣ지안허 덕천유치원에서광이 비치울것이라는바 신임보모는 금춘경성보육학교 출신의 황룡복(黃龍福)양이라고한다

愛慾의彼岸 【35】

李光洙 作
金康穆 畵

문임의 입술이 빵에 다흘때에 혜련도 몸이 자릿자릿하도록 깁벗다。부모의 사랑도 다 깨어저버린듯한 오늘 날에、저를 풀어주는것은 오직 문임의 사랑임을 느꼇다。비록 문임의 속과 제속이 착 들어맛지아니하는줄을 알건만도、문임의 속에는 열정、스무검 차 둔 무엇이 잇서서 혜련에게도 그것을、풀어보이지아니하는줄은 알면서도 그래도 문임에게 기대는것이 깁벗다。혜련의 마음 속에 임준상의 그림자가 못으로 박은듯이 달라부터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아니함이 아니지마는、그것은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것이엇다。임준상이가 과연 제것이 될는지、또 임준상이가 과연 미들만한 사람인지 그것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혜련―과년되고、게다가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숙성한 편이오、감수성이 대단히 예민한 처녀인 혜련은 동성친구의 우정만으로만 만족하지못할 뷔인 구석이 업지아니하지마는、사랑하는 이성의 정이 올때에 동성친구의 우정 따위는 대나제외로선 초불만도 못하겟지마는 그래도 고적(이것은 남녀를 물론하고 청춘시대에 짝을 구하는 본능이다)한 오늘에는 문임의 사랑이 혜련의 총재산이다。

『언니』

하고 혜련은 문임의 손을 만적거리며、

『그래 그이가 자살할것 것지는 아나합듸까。설마 그럴 리야 업지만。그래두、그이가 것트는 순해보여두 마음이 맵친 사람이라우』

하고 혜련은 어렷슬 적에 은주가 젓가슴에 난 부스럼을 쩰 때에 눈물을 똑똑 떨구면서도 아프다는 앙칼한마듸 업시 입을 꼭 다물고 안까님만 깡깡 쓰고 안젓던 일을 생각한다。

문임은、

『그이가 자살을 하자면 금시에라두 할수잇는 이야。혜련이가 바로보앗서。아주 마음이매친 이야。그 눈을 보아요。그런데 그이가 지금 어떠케 생각하고 잇는고하니、은인께 걱정을 끼처서는 안되겟다。아자씨게두 걱정이 되지안쿠、혜련이게두 걱정이 되지안케 해야겟다。이러케 생각하는 모양인데。그래두 무슨 결심은 햇는지、앙길의 결심은 햇두라구。오、이런 말을 해 !지금꺼지는 아지씨 은혜속에서만 살앗지만、은혜란 입셍두구 갑하두다 갑흘수는 업는것이지만 인재부터는 제 발루 걸어다니면서제 손으로 벌어먹을 도리를 하겟누라구』

하고 아모조록 은주가 하던 말을 고대로 혜련에게옴기랴고 애를 쓴다。그래도 제가 옴기는 말에는 은주의 말에 잇던 감격시키는 힘이 업슴을 느낄 때에 은주의 남성적 인격의 억세힘이 새삼스럽게 느껴젓다 녀자가 무술리니 숭내를 내는것과 갓다고 문임은 생각하엿다。

『그게、언니、무슨 뜻일까。어듸루 달아난다는 뜻일까』

하고 혜련은 근심스러운드시 뭇는다。

『글세。나두 더 자세허게 못 물어보앗서。도모지 말을 해야지。또 손님은 오구。내가 열 마듸나 해야 한 마듸 대답을 하나。그래두 땅이 꺼지게 한숨을 두어번 쉬어요。그이가 어듸 한숨 지일 사람이야?』

하고 문임은 제 말이 혜련의 마음에 어떠한 효과를 주나? 하는것을 알랴고 혜련을 바라본다。

혜련은 눈만 감엇다 떳다 하고 아모말이 업다。그러나 그것은 혜련의 마음이 무슨 무거운 긔운에 눌리는 것인줄을 문임은 보앗다。

문임은 실로、더럽꼬만한 이긔심도 업는、맑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혜련이』

하고 불럿다。

혜련은 말은 업시 눈만 문임에게로 돌렷다。

『혜련이。만일 어느분한테 마음을 준데가 업거든 설선생은 사랑해들여요。내가 보기에는 그이는 남편으로 미덥성잇는 사람 거태。그까진 대학공부가 머케 대수야。인격이 제일이지。대학개나 다닌 사내는 조선에두 수두룩 허지마는 어듸 사람거튼것 어듸 잇서? 모두 시큰둥만 허구 암것두 못허는 주제에 건방지기만 허지。인격이 제일 아니야? 난 혜련이가 그이허구 혼인허는게 제일 행복될것 거태』

하고는 문임은 일종의 고적함을 느끼다。말은 올흔 말인줄 알면서 제게 소중한 무엇을 남에게 권하는듯한 아수함이 잇섯다。

독매
매독근치세계적명약
ネオ、スピロヂン
藥價 五圓 七圓
京城鍾路 大同製藥社

純正 男性호르몬
武田發賣品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國際的으로効力의優秀가承認되고잇다
國際聯盟호르몬標準委員會パ―クス博士의「男性호르몬製劑의効力比較試驗」의結果、에나루몬의効果는 다른製品에比較하야 優秀함을 證明하엿슴니다。
(ロンドン中央試驗所 カロ―・デ―ンスタイン氏報告 三五年七月「生化學雜報」誌上)
에나루몬은動物及臨床實驗에依한血色素數、赤血球와體重增加를招來하며新陳代謝를促進에네루기ー、精力을增進하며疲勞倦怠를除去、作業能力을增進식힘
初老期・高齡期の 生活機能減退、神經障碍、倦怠感、睡眠不良、임포텐트、動脈硬化、腦溢血。
靑壯年期に於て 男性的衰徵을免하지못하는性徵不全生殖器性神經衰弱、性障害、惡寒症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製造元 帝國臟器製藥研究所 川崎市大島町

● 工夫中
ノーシン (노―신)
◆울삽수시요 머리가시원하고 明快하여工夫가愉快하게되오 어느藥店이고잇소

아스―ア
강력살충제
二好粉
二好化粧品株式會社
朝鮮京城 電話光化門七二七番

남모르게苦痛하는 無毛 脫毛 若禿의原因과 털을나게하는原理
田中醫學博士의成功
―說明書無代進呈―

眉毛、腋毛、恥毛等의人體毛髮部에 털이나게되는것은 그곳에各發毛機能을가지고잇는까닭입니다 即毛母가잇고 毛母는毛細管現像에依해서血液中으로부터 繼續的으로營養을吸收하야毛髮을發生식힙니다 그래서이毛髮發生能에 微菌侵蝕又는營養의減損等으로 停止식히면 毛髮은 依然히 서도들게되며 甚하면 全部버서지게됩니다 恰似히草木이日光과肥料를못주지안흐면 말러죽는 것갓습니다 前帝國大學敎授田中醫學博士가 이點에着眼하여 前記와가튼原理를根本으로 털이나는 藥『후미나인』을創製하엿습니다。毛髮도草木과가티毛根部에草木이잇서 肥料와가튼藥을주어發生成育을促進식힌다는것이털나는藥『후미나인』의 理論이며實際입니다 털나는藥으로는 各種多數로 그中에는効力에 疑心되는것이업다 고는斷言못하나 毛生藥은 爲先第一推薦함에躊躇치안습니다 무엇보다도他藥보다優越한點은첫재는 田中醫學博士 創製된것第二에 皮膚病良藥テ―ム水本舖로 有名한東京藥院의 發賣品인 優良한藥인까닭입니다 近來內服毛生藥이發賣되나 效果에잇서充分히알수업다고 富岡博士가明言하엿습니다 禿頭、病若禿、毛根不良、腫物禿、疎禿、薄眉毛、男女엇지못할곳에털이업는분毛不足으로 煩惱이조치못하여煩悶하시는분들은爲先『후미나인』을推奬합니다 發賣元은東京芝田村町四丁目東京藥院입니다 新聞名記入申込하시는분에限하야 詳細한毛生藥의說明書를 無代進呈하기로되엿습니다。振替東京三一八三二 毛生藥『후미나인』藥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送料內地六錢鮮滿廿錢

毛生元藥 후미나인 全國藥店에有

自宅で儲かる 副業本業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된다
◎僅少한資本으로一家安全하게되는前途有望한일계되는年中無休永久계속
◎遠近勿論하고副業又는本業으로婦女子에게도便하同業競爭者적고地方에따라獨占的事業이되다
◎製品은弊店에서永久取引함
◎素人도可하니實直한분의申込次第依賴함
◎見本及案內書無代進呈함
大阪市港區市岡元町四丁目拾參番地
マルハマ紙工業所 電話西六二四〇番

カフエー丸玉
記念品贈呈(十日限)
設備完全(個人席、衆人席)
一流女給(文子、時子、英子、菊子、静子、文子、雪子、春子、)
接客親切 迅速調應
西洋料理
慶南金海邑北內洞(金海劇場前)
開業披露하기爲하야粗品進呈

I-KATOL エキカトール

榮養에 わかもと (와가모도)
호르몬의總和로되야全身細胞賦活作用을特色으로하는本邦唯一의純正劑
粉末卅目・錠劑三百錠一圓六十錢

第一劇場
六月廿七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映畵鑑賞週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繼映 夜間八時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유니버―ㅅ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레오나카레드이氏監督 大레뷰劇 간다에鬪牛師
松竹蒲田現代劇部藝術作品特作品 監督…小津安二郞氏 現代劇 出來ご(出來心) 主演…坂本武氏大日方傳氏 伏見信子孃
米國FBO社特作品無聲 로바드데레시氏監督 西部活劇 鐵拳兒 主演 돔다이라氏 도리스힐孃
여러분의 鍾路五丁目 電光二三一三番

二十七日初日七月二日迄新作封切
待望の豪華プロ
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名匠キング・ヴイダー監督不朽の傑作
薔薇はなぜ紅い
名花マーガレット・サラヴアン、ウオーター・コンノリー主演南北戰爭時代の或る農場の持主一家をバックに、移り行く世相と變り行く人人の心境をキング・ヴイダー一流の氣取らないジックリとした形式のうちに語る戰ひの抒情詩
P・C・L映畵撮影所擴張記念作 菊池寬原作…矢倉茂雄監督
オール・トーキー 處女花園
堤眞佐子・中野英治・山縣直代他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盤
わが胸は高鳴る
フランク・タットル監督ビング・クロスビー、キテイ・カーライル
◆晝夜三回入替ナシ大五〇學三〇
次週封切P・C・L兄いもうとコロムビア映畵オペラハット
若草映畵劇場 電本二五四番

廿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無說明映寫)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리차―드・뽀레스라부스키監督 聲樂王로렌스티베트主演
메추포리탄 (MetroPolitan)
빈민굴酒場顚倒에서 藝術家로 紐育메추로포리탄劇場의 오페라歌手의 랑킨스第一位獲得한티버트가마음것 銀幕을뒤흔들면서 萬衆의拍手에싸인待望의最高聲樂映畵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天才少女젠・원서朝鮮에데뷰!!
나는우리동나재롱꺼리 (Gingers)
兒童映畵의넘버원、白熱的絕讚下에只今젠들의人氣와못지안은新進天才의登場!!눈물과수슴의交錯!!
◆日活超特作映畵
緣の地平線 前篇 ―(次週封切)(三日)―
오페라헬、뮤직꼬라운드、愛國者、로맨스乾盃、행콜의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當る廿四日特別大公開 每日晝夜三回興行
上映時間表
	一回	二回	三回
ニュース			
安兵衛十八番斬り	一、二〇	三、四〇	七、〇〇
街の艶歌師	一、四〇	四、三〇	八、〇〇
新興キネマ提供 高田プロ大合同製作 原作 村岡義雄 監督 牛原虛彥 脚色 村上德三郞
オール・トーキー 街の艶歌師 高田稔 マーガレット・ユキ主演
新興キネマ提供 寬プロ本年度超弩級作 原作 實錄『中山安兵衛』より 監督 益田晴夫 撮影 野村金吾 オール・サウンド
安兵衛十八番斬り
嵐寬壽郞大熱演 關操(松竹)多多良潤路(新入社)松本田三郞・荒木忍・大西卓夫(新興)外寬プロ總出演次週三十日特別短期名畵祭◇
永樂町 電話三六番 中央館

經濟解說 米國經濟立法
①今年議會通過內容

閉會中이든 米國議會는 지난 二十一日 午前零時半으로 閉會하엿다 今年의議會는 正式으로 말하면 第七十四議會의 第二會期로 一面 루즈벨트政權에잇서는 네번재의議會이엇다 그러고 今秋 大統領選擧의結果如何에 따러서는 루즈벨트政權으로서는 最後의議會가 될는지 모르는다 루즈벨트政權의 政策에對한 熱意와 이에對한聲望이 一九三三年同政權出現以來 一九三四年頃까지와 가티 旺盛케 되다고하면 今年의 議會도 一層活氣를 띄엿슬것이나 昨年議會에서 이미 所謂「新政策」의 整理時代를 標榜한루즈벨트政權의 今年議會에 對한 熱情가 거의 冷却되고 말엇다。

×

이것은 元來 前記와가튼大統領選擧를 今秋에 압둔것도 重大한 原因이다 루즈벨트大統領의 再選은 確實하다고 보면서도 그豫想이 昔日과 갓지안라 民主黨大統領候補指名에잇서 再選되엇스나 今後의形勢展開에 對하야 定見을갓기어렵다 所謂「新政策」에 對한 强力의 敵으로 된 聯邦大審院은 今年에 드러서도農事調整法、棉花統制法、石炭統制法等 重要立法을、違憲으로 判決하엿스나 이에對하야 政府는 憲法改正을 研究하엿슬뿐으로 聯邦憲法革新等의 大問題에는 到底히 손을 못대엿다 그래서 今年議會는 루즈벨트政府에對하야 거의 無爲政策의 議會로 꼿내엇다고 말할수가 잇는바 그主要한經濟關係의立法을 綜合하여보면 다음과 갓다

(一) 軍人恩給法 (二) 土壤保全法修正法(農産調整法代案) (三) 商品取引取締法 (四)稅制改革法 (五) 医救事業費等追加支出法 (六) 船舶助成法 그中에는 軍人恩給法의成立은 大統領의拒否權을 不拘하고議會가 再通過成立케한것이다 重要立法의骨子를 要約하면 다음과 갓다

×

▲豫算敎書―一月三日 議會再開當日의施政方針을 밝힌歎書를 보내인大統領은 六日에 다시 一九三六―七年度豫算敎書를 議會에 보내엇다 이豫算의 特徵은 從來 緊急支出項目中에 잇엇든 農事調整及森林開發에關한費目을 通常豫算等에編入하고 事業救濟費目만을 緊急豫算으로 分離、通常豫算에는 歲入歲出의均衡을圖하엿다 緊急豫算에 對하야는 다음과 가티 三月十八日의 特別敎書로서 追加支出案으로、提出되엇다 一月六日의 豫算敎書에 基하야 一九三五―六年度(改訂)及 一九三六―七年度豫算額은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百萬弗)

	一九三五―六	一九三六―七
歲入	[illegible]	[illegible]
歲出	[illegible]	[illegible]
差引	(一) [illegible]	(十) [illegible]

[註] 歲出中 一九三五―六年度에는 農業事業費를 包含하엿스나 一九三六―七年度에는 이것을 包含치안헛고 差引(一)은 歲入不足(十)은 歲入剩餘

×

▲追加支出―以上과 가티 一月六日의豫算敎書에는 分離하야 三月十八日의特別敎書로써 大統領으로부터 議會에勸告된 議會에서는 五月十一日 下院通過、六月一日上院通過、兩院協議會가생겨 妥協案成立의 結果 六月廿二日 大統領의署名을 끈내엇다 이것은 十四億二千五百萬弗餘의 事業救濟追加支出、約四億五千萬弗의社會保險事業費等 合計二十億七千五百萬弗의 支出計畫을 한것으로 社會政策的立法이 殆無한 今年의 議會에서 에關聯이 잇는것으로 注目된다。―(續)―

好景氣를떠드나 不渡手形漸增
京城에서上期中百七十九件
朝鮮人百六件의多數

朝鮮은米價高、金融景氣、일부러景氣等으로 好景氣를떠들어日本內地에서까지 크게注目코잇는데 果然朝鮮의好景氣가 實論할수잇을가? 이제今年一月부터今二十七日까지의 卽上半期中 京城組合銀行手形交換所로부터 不渡手形에依하야 取引停止를當한數字를들어보면如左하다

昭和九年에는 二百七件이든것이 昭和十年에는 二百八十四件으로增加되엇고 今年은上半期에 벌서百七十九件에 達하야 好景氣에 反比例로 不渡手形이激增되엇이 注目되여特히 百七十九件不渡中에 朝鮮人이 百六件에達하야 總數의 六割로서 朝鮮人商工業者의經營難을 證코잇다

繁華한營業裡面 도리어失敗가만흔모양

上半期中 京城手形을 業態別로보면 가장만흔것이 職業未詳인것으로 이것이 六十六件인中朝鮮人이 三十六件이며 가장注目되는것은 樂器、雜貨、택시가튼 時代性을 띄인 繁榮한營業者와 食料品、酒造、酒商 米穀商들에 不渡手形이 만흔것이눈에 띄우며 그것이 거의全部 朝鮮人業者인것이 더욱 關心을 가지게한다

業別	總數	朝鮮人
自動車修繕	一	一
帽子	二	一
樂器	六	四
택시	五	五
雜貨	八	六
菓子	一	一
食料品食器	六	五
履物	一	一
新聞	二	二
靴商	三	一
鑛業	二	一
食堂、飮食店	三	一
市場商人	一	一
自轉車	五	四
未詳	六六	三六
織物	四	一
洋服	一	一
海産物委託販賣養魚場	五	五
運送	一	一
土木請負建築	七	五
印刷、出版	五	五
材木、鐵物	四	四
絹布	一	一
酒類、釀造	四	四
米穀、雜穀	五	四
運動具	一	一
穀物貿易米商	十	五
材木	一	一
藥房	一	一
洋家具	二	二
세멘트	一	一
鑛油	二	一
皮革	一	一
旅館	二	二
時計	一	一

甲板積載米 保險은不認
七月一日부터實施

朝鮮米를各保險會社에서는 從來 農産物、海産物의上甲板積載에對하야 保險契約을認하엿든데七月以後契約貨物의 保險은 割增을 붓치드래도 保險契約을 안하기로協定하엿는데 그理由는

一、米의 上甲板積載가 最近頻頻하야 實際上 損害가 上甲板積載인지 艙內積載인지 모르는點

一、米는 그性質上 甲板積載로 할것이아니다

고 한그것인데 魚油만은 特히 從來대로 甲板積保險을 認키로되엇다 그影響은 船會社方面에 相當히 大할것으로 보는데 朝鮮에서는 影響이 적다고말한다

米運賃의 協議開幕
二十八日부터

오래동안 亂脈狀態에 빠저든朝鮮米輸送關係의 調整과 新協定運賃을 決定할 朝鮮米運賃協議會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日本內地 朝鮮荷主 船會社代表가 一堂에 모혀서 討議키로되바 이協議會를열기前二十七日은 午前十時부터穀物協會聯合會幹事會를 열고 朝鮮內荷主로서의 態度를 決定하고 午後一時부터 日本內地 鮮荷主의 豫備協議會에 옮기러인데 一面 船會社側은 午後六時부터 船會社代表의 會見兼明日의 會議에 對한策戰을 協議키로 되엇다 그러고 船會社代表一行中 香春(商船)、山口(朝郵) 太田(中村)、松本辻(辰馬)、小川(澤山)、丸谷(東和)、佐藤(大連汽船)八氏는 今日午前七時四十五分着入城、三五(飯野)、淮田(尾崎)의 兩氏는 午後三時京城할터이며 阪神荷主代表 田中米穀會會長、庄野副會長、林書記長도 午前七時四十五分 入京하엿다

內山馬尼羅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達한報告에 依하면 比律賓政府는 新法律이 日本商品의輸入을 防止할目的의것이 아니므로 日本商品의進出에 큰影響도 업고 오즉新財源을 目的으로 한것이라고 한다

農會系硫安會社 設立研究進行中

朝鮮에서 農民系資本에 依한 硫安製造를 한다는 有利한것을 尾崎農林局技師가 提唱한 以來 各方面에서 深甚한關心을 가지고 잇는데 그中農民關係團體에는 그實現에對하야 具體的으로 要望되는데 尾崎技師는 다음과가티말한다

肥料業統制의 强化에 依하야肥料의價格은 低下케될것이나 硫安製造는 달른有利한 工業으로 轉換하야 減産케될 傾向이잇다 一面 需要는 自然增加와 價格低下로因한 增施로 今後도增加케될것이다 이런때에 需給의圓滑을 期키爲하야 農民系의 肥料會社가 잇슴은 가장 必要하고 朝鮮은 여러가지의 有利한條件이잇다 日本內地의 全購聯이 滿化의背景을 하고잇는것처럼 朝鮮에서는 朝鮮農會의 肥料配給事業에 對하야 이러한系統機關이 잇는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야 目下그具體的計畫을研究中이다

朝鮮窒素製造인 카―바이트의朝鮮內取扱店은 第一次詮衡의結果 立石商店(釜山) 出先商會(京城) 朝日商事(同)內外物産(同)의 四店으로 決定하고 窒素肥料販賣會社를 元賣會社로하게되엇다고

朝鮮叺白米不賣 穀聯에서協議

朝鮮米輸送協議會는 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開會되엿스나 이번 突然 大阪穀物同業組合에서 決議한 朝鮮叺入白米의 不買問題에對하야 協議코자 運賃協議는 午後에 延期하기로되엇다고

大阪米商決議의原因

大阪의 朝鮮白米不買決議는 朝鮮內移出業者에 大衝動을 與하고잇는바 右에對하야 諸情報를綜合하면 六大都市 朝鮮米取扱業者도 大阪에 模倣하야 不買決議를하려는 形勢로 近近 어더한 形式으로 意思表示를 할 모양인데 不買決議의 動因이表面上 米穀自治管理案에 觸하고잇스나 實際는 最近 東京에잇서서의 仁川加藤精米所취인式直賣開始後 六大都市 業者間에서 이에 反對氣勢가 잇는때 加藤精米所가 大阪에서 「千成會」를組織하고 直賣를 强化 하얏슴에 原因하는것으로 日本內地業者로서는 多年 朝鮮米의 宣傳에 努力하야 왓슴에 不拘하고 如斯한 旣得權益을 無視함과如한 朝鮮內精米業者의 態度는商業道德에 反하는것이라하야 不滿의意를 表하고잇서 同問題의解決은 朝鮮內業者의 反省을기다리는수밧게 업다고한다

中央物産一割配

中央物産會社에서는 二十七日 午前十時二十分부터 第五回定期總會를열고 一、昭和十年十二月一日부터 同十一年五月三十日에 일혼는諸

經濟關係協議
最終日의知事會議

道知事會議도 二十七日로써 맛나는데 이最終日의 協議事項은 다음과갓다고

一、重要産業統制에 關한件

一、米穀自治管理法의 說明

一、産業調査會에 對한意見

一、自作農創定에 對한所見

一、民曆改正에 對한意見

産金業課稅 朝鮮은反對
增産이國策인까닭

産金事業에對한 課稅說이最近 日本內地 方面으로부터 傳하는데 이에對한 石田鑛山課長은 다음과가티 否定하엿다

朝鮮의 産金策은 本格的事業期에 드러갓슴으로 指導奬勵를 하는이때에 課稅는 全然 생각지 안는다 또 一面으로 金買上價의引上 其他國內金의增産 保有增大가 國策으로된 이때 그方針과背馳되는 方針을政府가 取치안흘것으로 생각한다

가령日本內地에서 實現한다고 하드래도 朝鮮에서는 特殊的取扱産金奬勵의 方針은 變치안흘모양이라고한다

奢侈品輸入 特別稅賦課
比島政府가着手

【東京電話同盟】比律賓政府는新國策에基한 國防、敎育、天然資源의 開發及社會制度의 改善에要하는 新財源으로 奢侈品輸入의 年額二千萬메소의營業稅를課하고 다시販賣高에對하야 五分의特別稅를 設定하랴고 新法律의立案에着手하야 今期議會에 提出키로 決定하엿다 二十六日

重要商品界事情
人絹市勢
逆行할時代

人絹市勢는 相當히 세이다 이것은 統制悲觀과 輸出悲觀으로 오랫동안 賣込엇든反動과 對濠洲通商擁護法의 發動에 關聯하야 政府가「스레―푸·파이바―」를 助成키로 되엇스므로 이에對한 好感을 가지게되때문이다。

◇

政府는 不遠「스레―푸·파이바―」의 事業者와 人絹業者를 招致하야 今後의 羊毛原料政策을 確立키 爲하야 懇談會를 열기로 되엇는데 年額廿五萬俵의羊毛를 이「스레―푸·파이바―」로 補充케 되면 當然히『비스코―스』人絹系「파이바―」로 充當치안흘수가 업슬것으로 人絹의減産은 必至가 아닐가。

◇

그리고 濠洲를 비롯하야 人絹織物에對한 各國의 關稅障壁은 더욱 노파지는 現在의情勢로 하면 今後 더욱 關稅戰이 激化케 될것이며 따러서 海外에 對한 輸出은 悲觀되며 濠洲가 關稅를 引上케되면 곳 新西蘭으로 人絹織物의 輸出이 激增되고 廉價의 日本商品이므로、關稅로해서 한 阻止가되드래도 第三國을 거치게되고 其他의 方法으로 輸出이 旺盛케되야 結局輸出은 悲觀할 程度의 減退에 안이를듯하다。

◇

그래서 人絹市勢도 惡材料를 밋고서 賣込하면 그것은 往往 바닥으로되야 反撥의基礎工事가되다 그럭라고 해서 市場의 人氣가 極端으로 熱狂하면 操短解除、增産、會社의 賣出動으로되야 市勢의騰勢를 꺽게될것이다 어떠튼지 最近의市勢는 壽命이 짧고 大局觀으로 逆行할時代인感이잇다

時世變遷을 株界서反映

株式市場에 會員組織運動이 旺盛하얏슬때가 自由主義經濟의全盛期 政黨政治豪華時代로서 「그든것을 民主的으로 行하자는것이 時代相이엇스나 그現實狀에 比하면 隔世의 感이잇다 지금 取引所의 會員組織을 論議하야도 들어주는사람이 업스며 政界도 議會中心主義는 昔日之夢이며 經濟界는 統制金融國家의事業管理 經營干涉等으로自由主義活動을 制壓코저한다 卽會員組織論이 旺盛하얏던때가 株式界의 全盛時代이엇고 市勢도當時와가튼 活潑을 想像할수업는것이 今日의 實勢로 모든것이 時世變遷이다(勝部 東株常任監査役談)

商況 (廿七日)

그러나 白衣백성은 故土를떠나 北으로 南으로 離散……

이것이 朝鮮의好景氣相

○

「그러나 米消費도 激增될것이로 朝鮮米移出이 激減될터이라」고

○

大阪 어떤친구가 朝鮮와다가서 하는말이『京城서 電話가一千二百圓 仁川서九百圓、東京은八百圓이니 朝鮮의景氣는宏壯하다』고

株式 다시賣抑 不勢

前場低迷

休日을압둔半日立會는 다시賣人氣로低迷不勢이엇스니 卽後引에比하야 東新七十錢低인 百二十九圓五十錢 日産四十錢低인六十九圓七十錢 鐘新二十錢低인 百五十五圓十錢、朝取七十三圓五十錢 朝新三十四十錢에保償、日産新二十圓五十錢에各大引되엇스며 大新七十二十錢、朝石十八圓三十錢 日鐵百三圓丁이이엇는데 東京大阪當限納會平穩이엇다

◇東新 [illegible]

買主力업는 東新의不勢

東京市場에서 東新을買하는사람은 所謂主力이라하는것은 하나도업고 地場이賣할뿐인바 昔日은市勢가암만不良한때라도 最後까지 버틔고決戰하는任手가잇섯는데 東新의愛着이나 信者라고는 차저볼수가업고 팔것은東新이라고 東新을推一無二의 賣目標로삼도록 時世가 變하얏는바다른때이면 이런것의 大反動이應當잇슬것이나 지금은 그것을期할수업다고 歎聲을發하는「구로도」가잇섯다

米期 節節低下 漸落

前場反落

昨後場 阪地三十四圓二十三錢止와共히 三十二圓○四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十一錢인十二丁反落을據하고 三十一圓八十八錢인十六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二節十錢으로 稍漸反戾하야 二十錢에止場함을伴하야 二節八十六錢으로 九十六錢까지反戾하엿다가 九十一錢으로結局九十三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續落

後場은 三十一[illegible]

株……百三十圓으로 反戾되기에 좀더 올느나 하엿더니 다시 賣抑、日産도 七十圓割인채 低迷일뿐▲過當投機取締이니 委托者保護 其他 問題에 就하야서는 從來와 가티「구로―스」하지안코 相當히 罪케될것▲要컨대 이런것들은證券市場의 健全한 發達을 期하기 爲하는것이니 悲觀할것이업다하나 그것은 理論이오實際東新不人氣는 難免。

米……今朝木浦의 降雨가三十粍미리에 達하엿다는 情報에 各地一齊히 反落을告하엿스나 全朝鮮的으로 雨量이均霑되지안코는 旱騷를 一掃치못할모양▲揚子江의 低氣壓이 東進하는모양이나 勃海灣의高氣壓이 退却하지안코버틔고 雨를 期待키 難하다고할것 보자▲挽近當市場에는 堂島市場으로서의 實往文이 續出한 모양이라고 此는 取消的賣物?▲今朝阪仁兩地의鞘는 二圓三十丁이나 擴大되엿스니 이제는 縮鞘할次例?

揚子江低氣壓 東方으로進行

仁川觀測所의發表에依하면 今朝 降雨量若待하는中인데 左記와如하다

高氣壓은 小笠原東方에잇고 低氣壓은 黑龍江河口千島及 滿洲附近에잇고 또黃海東支那海에서 揚子江流域은 氣壓의谷에掩蔽되어 上海北東沖及 漢口西方에 低氣壓이잇다 天氣는 中國、滿洲、朝鮮及 日本內地에直하야는 何處에든지慈雨인데 天이오 東北地方과北海道만이 겨우晴天일뿐이며 또黃海中部以南、朝鮮海峽方面及 南朝鮮一帶는 雨模樣으로 木浦는 今朝雨量이 卅一미리에 達하엿다 太平洋의高氣壓은 徐徐히 東方으로退却되는 共히 揚子江低氣壓은天氣로 東進함에 딸아今明日南朝鮮은 降雨中部以北도陰暑으로 中部는 或處에 依하야小雨가잇슬모양이다

各地一齊反落
木浦의降雨로

昨今各地市勢는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한高位이만치 當業者阪地十錢丁의反落을 告하고 또아서 當地는 約二十丁의反落을 示하엿다 要하면 今回降雨의雨量이 充分하야 植付를 完了하는때는 그동안旱魃買의 正反對의 現象을招來하야 數段의反落으로 今年大災戰의 第一回勝負를 決하고 更히第二回戰에 入하게될모양인데 果然 參田時代의 天候가또한 何如할지 時日을往할사록 兩方共히 警戒를 要치아흘수업슬것이다 그리고 압흐로端境期에 接近하여갈수록 需給難의直感을 如實히 表徵하게될것임으로 此需給의 問題와 天候의如何에 依하야場面의 興味는 多大하다고 云云

今日財界 (廿七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市中金銀價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銀行假決算

地元銀行에서는 二十五日現在로上半期의假決算을 하엿는데 各銀行이 모두金利低下等으로 利幅이 縮少되엇슴을 不拘하고 預金貸出의計算增加와 新規資金의 運用開始等으로 前期及 前前期 以上의好成績을 보게되엇는데 各銀行이 모두株主配當은 大體據置로決定하엿다고한다

決案

三、退職役員慰勞金及 故取締役成田信民弔慰金贈呈의件

四、取締役四名及 監査役一名補缺選擧의件

[illegible] 二號議案은 原案대로可決하고 三號議案은 取締役會一任 四號議案은 取締役에 富田儀三 金溶泰 西川秀吉 富野七三郞 監査役에 岩本道平의諸氏를 選任하고 同三十分에終了하엿는데 株主配當은 一割이라고

經濟界消息

○土木協會再建準備委員＝朝鮮土木建築協會再建準備委員會는 廿六日 午後一時부터 旭町同事務所에서 열고 三宅組外三十八組出席 協議의結果 設立準備委員을 選擧하고 諸般의準備를하기로決定하엿다 會長은 總督의推薦을 請하고 創立總會其他도 總督府의 指示에依하야 決定할터이라고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 [illegible] ▲東邦炭礦 [illegible] ▲日産製作 [illegible] ▲新興人絹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金融情勢의 惡化로 數日來 買進되든 關係로今朝는 一部買方의 利喰이 出現하야 大概五錢乃至十錢의 少級이오 實物市場도 買方의 處分으로 軟調이엇다 米貨債는 續하야 利喰物이만코 六分半、五分半共히 一、五十錢續落이엇다

大阪國債市場

四分利 一〇一、六〇 二回四分利 一〇一、四〇 ▲甲五分利 一〇一、四〇 ▲第三五分 一〇二、九五 ▲二八年四分 一〇一、一三五 ▲三一年四分 一〇〇、三七 ▲二回四分 一〇二、五五 ▲佛貨四分 一九八、三五 ▲米貨六分半 三九七、八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各地當限受渡內容

	石數	價格
大邱	三三〇〇	三〇九〇
釜山	四〇〇	三一三〇
群山	六五〇〇	三一〇二
木浦	四四〇〇	三一六〇

堂島期米低落

【大阪電話】關東方面에 降雨가잇고 移植樂觀氣分으로 買方의 諦賣로漸次賣氣早盛이엇다 取組高이 미三萬六千石으로 減少되엇다 渡方은 採算不合으로 乘換이賣出하야 結局受渡는 一萬石程度로보인다 潮先의渡米敢行은小川의 四、五千石을 비롯하야 下關側弘瀨岡崎等으로 渡할것으로 보이며 受方은 中先에 相當히買玉을 擁코잇다 藤田이買玉保護上受하는外에 地方側이受米를 할것으로보이며 價格은三圓七〇錢豫想이다

賣方 地場東京側 中東側

各地正米

買方 朝鮮側 地場小口側

京城低落

期米低이며 頗히 上에는 雨天模樣임으로 氣配는二十錢이 反落한바 丸仁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五十錢

仁川反落

期米低落을伴하야 多少賣物이잇서 前價보다卅錢低로 當用賣需에 少量賣拾이 잇섯는데 ㊀三等三十一圓七十錢

釜山閑散

定期는 軟調이나 新規買物杜絶로 市勢는如前히 依然大閑散 據置이엇는데 ㊁三等三十一圓六○錢 同四等三十一圓三○錢 一等白米 [illegible]

大邱軟調

昨夕以來의 滋雨로人氣가 軟味를띄이고 期米低로呼價도十錢이 떠러저다 ㊁三等三十二圓○錢同四等三十一圓九○錢 一等白米 三三圓〇〇

群山氣崩

淸算의低落을보고 다시二十錢低氣配로 되엇스나 産地의賣氣는 依然不振으로 氣崩하야 大閑散場面이엇는데 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同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八十錢

木浦低落

移秧樂觀人氣와 期米의 軟弱을보고 三十錢急低落을 나타냇는데 實買는 依然不振이엇다 ㊀三等三十二圓 同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

米期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康益夏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 株式會社

株式 米期 玉 柳來憘商店 仁川府本町 電話 [illegible]

米期 福 仁川 吉村榮左工門商店

德 金.銀.白金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②3939 振替京城234 要送料元金

金融 (廿七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廿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廿七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豆油冲價 [illegible] ◆豆粕冲價 [illegible] ◆지카고期米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 (廿七日)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賣定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廿七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廿七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